

“생명 걸고 기도하면 다음세대 영적으로 되살아날 것”

연세기독교학부모회, ‘2025 거룩한 성회 기독 학부모 연합집회’ 개최

연세기독교학부모회(대표 장유미)는 6일 연세대 대강당에서 ‘새 시대 믿음의 지도를 완성하라’는 주제로 ‘2025 거룩한 성회 기독 학부모 연합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고성준 목사(수원하나교회 담임)이 ‘시대의 도전자들’(히 2: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고목사는 “좋은 건물을 설계도대로 지어진 것으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며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산다면 우리의 삶이 생육하고 번성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대로 저주는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두신 복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을 때 임한다”며 “대학 시절 공허함에 허덕이다 선배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거듭나 내 삶은 창조주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행복해지는 길임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어려움을 돌파하는 능력도 주신다”며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홍해와 ‘요단강’여리고 성이라는 어려움을 돌파했다. 이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부르심의 길을 따

르도록 부모들이 지지해야 한다. 그곳에 풍성함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고목사는 “한국의 부르심은 기도에 있다. 한민족의 DNA는 생명을 건 기도라고 열매가 바로 현재 세대의 필요함이다. 이처럼 이 세대가 기도한다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라며 “한국이 기도에 특화된 민족인 이유는 한이 많기 때문이다. 저주인 한은 100년 전 들어온 십자가를 통해 축복으로 바뀌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돌과가 일어난다”고 했다.

그는 “이 시대 진리로 포장된 미혹은 황금만능주의, 진화론, 인본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문화 막시즘이다. 우리 자녀 세대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57가지 미혹에 휘둘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의 영향으로 첫째, 과학영역에선 진화론, 종교영역에선 창조론을 진리로 믿는 진리의 이원화다. 이에 다음 세대 사이에선 무엇이 진리인지 혼란이 일기 시작했다. 둘째, 쓸모가 존재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수는 점수에 따라 다음 세대의 가치가 규정되는 풍조가 팽배한다. 이는 진화론의 자연도태설에서 비롯



고성준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 노형구 기자

된 것으로, 거짓이다. 창조주는 쓸모와 관계없이 사람을 귀히 창조하셨다. 셋째, 포스트모더니즘이다. 이성과 사실은 부정되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현상의 사실 여부를 규정하는 태도다. 좋고 싫음의 반응이 진리의 판단 근거가 돼 버린 것”이라고 했다.

고성준 목사는 “넷째, 타락한 본성에 따라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진리로 한다는 것이다. 수는 점수에 따라 다음 세대의 가치가 규정되는 풍조가 팽배한다. 이는 진화론의 자연도태설에서 비롯



기도하는 학부모들의 모습. © 노형구 기자

행복해진다. 다섯째, 문화막시즘으로 기독교적 가치관을 허물고 공산주의 사해를 앞당기자는 것이다. 이는 동성애, 페미니즘 등 성별남성가정을 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반대되는 싸움을 지속한다면 선함이 창출된다는 변증법적 사고에 기초한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시한 자신의 선택을 유일한 진리로 상정하며, 분노를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여기는 악함이 발생한다. 특히 여기서 파생된 희생자 이데올로기는 가해자를 지칭해 분노를 쏟는 사회적 풍조도 문제다. 사랑은 하다한 죄를 덮는 것이나, 분노를

동기로 삼는다면 이는 반기독교적 요소”라고 했다.

고목사는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올바른 방향을 갖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며 “하나님이 주신 지금의 영혼육의 풍요는 이전 세대의 기도에 기인하며, 우리가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다음세대는 되살아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기도회에서 학부모들이 다음세대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이들은

‘기도가 참 기도가 되고, 순종이 참 순종이 되는 화개의 문을 여는 기도’ ‘시대의 좌악을 짊어지고 무너진 청년다음세대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더 깊은 화개로 들어가는 기도를 제목으로 기도했다.

한편, ‘거룩한 성회’는 연세기독교학부모회(연기모)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2023년 선포한 ‘전국 기독학부모 연합’ 비전에서 시작돼, 지금까지 연세대의 복음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전국 각지의 학교에 학부모 기도회를 세우는 데 힘써왔다.

2023년 제1회 집회를 시작으로, 2024년 제2회 집회에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학부모와 중보자들이 참여해 교육과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운동을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각 학교로 돌아가 기도회를 조직하거나 기존 모임과 연대하며 학부모 중심의 기도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

특히 ‘영적 임양 무브먼트’를 중심으로 한 신앙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이 운동은 청년 다음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세대 간 연합 기도를 통해 실천하자는 취지로 시작됐으며, ‘기독 학부모-기독교사(교수)-기독교학생’이 함께하는 ‘삼겹살 전략’을 통해 학교 현장의 신앙 공동체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노형구 기자

교회의 정치 참여, 어떤 태도로 어디까지 해야 하나?

목회자·전문가 참여한 ‘한국교회 열린 토론평장’ 열려

최근 우리나라는 정치적 격변을 심하게 겪으면서 ‘교회의 정치 참여’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올랐다. ‘교회는 세속 정치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고 어느 정도까지 참여해야 하는가’는 지난 수년간 교회 내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이에 한국교회 주요 목회자들과 전문가들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교회(담임 이기용 목사)에서 이 주제로 토론회를 갖

고 각자의 견해를 밝혔다. 이기용 목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상학 목사(새문안교회),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 박성민 목사(CCC 대표), 김문훈 목사(포도원교회), 장동민 교수(백석대), 전석재 교수(서울신대), 최윤식 미래학자가 패널로 나섰다.

한기재 목사는 “교회와 정치의 목적은 서로 다르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세속 정부는 정의와 자유를 실현하는 데 더 목적이 있을 것”이라며 “교회는 세상에 성경적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회는 더 높은 차원에서 세속 사회에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최윤식 미래학자는 “정치 이념을 가지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이 심화하면 사회는 내전으로 치닫게 된다. 이 때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성도와 국민”이라며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이다. 성도가 그 부분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문훈 목사는 “목회자가 정치에 대해 성경적 원리를 가르쳐야 하는데 성경하게 답을 주려고 하다보니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다”며 “바로 답을 주려 하다보면 정당과 정치인에게 이용당하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전석재 교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대변하고 그 가치로 세상을 바뀌려는 것이 교회다. 그러므로 사회적 약자 등 소외 계층을 돌아보는 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그런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건 적합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이보다 성경의 원리와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학 목사는 “정치는 교인들이 살아가는 물과 같다. 교회에서 아무리 맑은 물을 주어도 세상의 물이 혼탁하다면 교

인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며 “따라서 어떤 정체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어떤 이념과 사상, 철학이 교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목사는 “성경적 정치는 진리 중심이 되어야 한다. 반면 왜곡되거나 병든 교회의 정치 참여는 진영 중심”이라며 “교회가 선부르게 진영 논리에 참여해서 특정 이념을 사수한다는 듯한 인상을 주거나 교회의 이미지가 특정 정파와 동일시 되면 교회는 쇠락하고 그 정체성은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박성민 목사는 “교회가 성경에 근거해 이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중요하다. ‘사람들의 필요에 얼마나 공감하면서 나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라며 “성경의 원칙을 이야기 하되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교회가 정치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장동민 교수는 “교회와 정치는 결코 텔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는 패널들. (왼쪽부터) 최윤식 미래학자, 전석재 교수, 장동민 교수, 김문훈 목사, 박성민 목사, 한기재 목사, 이상학 목사, 이기용 목사(좌장) ©김진영 기자

수 없다. 전통적으로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3.1운동 당시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었고, 해방 후 반공주의와 산업화가 필요할 때 교회가 선두주자가 되어 정부와 함께 일하므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성립했다”며 “교회가 그 때마다 시대정신을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 행동했던 것”이라고 했다.

장 교수는 “그러므로 시대정신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대로 바뀌고 있는 지금, 과연 어떤 시대정신을 정립하고 여기에 맞는 정치체제를 상상해야 하는가 이것이 교회와 목회자가 풀어야 할 과제”라며 “다만 가장 고난받고 핍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시대

정신의 모체”라고 했다.

한편, ‘한국교회 열린 토론평장’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교회와 정치’ 이외에도 ‘교회와 사회’, ‘교회와 미래’라는 주제로도 토론회를 이어갔으며, 위에서 언급한 패널들 외에도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 박명룡 목사(청주서문교회), 김형근 목사(순복음금성교회), 남민 목사(뉴송처치)가 패널로 참여했다. 이 토론회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좌장을 맡았던 이기용 목사는 “우리가 차이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지고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사통팔달 강원시대가 시작됩니다.

1시간 25분
평택 ↔ 제천 ↔ 영월 ↔ 삼척

126.9km 29.9km 70.3km

에타 통과(50분 예상)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서해에서 동해까지 2시간대로 가까워집니다.

강원특별자치도
GANGWON STATE

“하나님 은혜로 세워진 50년, 복음의 등불로 다음 세대와 열방 향해”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창립 50주년 감사예배 드려

타코마제일침례교회(담임 송경원 목사)는 지난 11월 2일(주일),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연합 감사예배를 드리고,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반세기 동안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교회가 속한 남침례교단의 주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자리해 경건하고 은혜로운 분위기에 진행됐다.

성도들은 교회 창립 이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격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남침례교단 주요 목회자들은 교회의 지난 헌신과 수고를 격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송경원 담임목사는 “반세기 동안 변함없는 은혜로 타코마제일침례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시며 복음의 등불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린다”며 “지난 50년의 여정은 오직 하나님의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창립 50주년 감사예배 현장의 모습. ©교회 측 제공

은혜였고, 성도들의 믿음과 눈물의 헌신이 오늘의 교회를 굳건히 세웠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어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앞으로도 다음 세대와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제자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한

다”며 “제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나아가자”고 권면했다.

타코마제일침례교회의 토대를 세운 문창선 원로목사는 “타코마제일침례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



예배에서 설교하는 Jeff Iorg 박사 ©교회 측 제공



왼쪽부터 이태경 목사, 강승수 목사, Lance Caddel 사무총장, 문창선 원로목사 ©교회 측 제공

고, 교회 개척을 도와준 레이크우드 제일침례교회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목사는 “38세의 젊은 나이에 담임목사로 부임해 여러 차례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했다”며 “찬양이 넘치는 교회, 다민족이 함께 예배하는 국제적인 교회가 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듯, 앞으로도 타코마제일침례교회를 통해 더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예배에서는 남침례교단 총회장 제프 아이오그 박사(Dr. Jeff Iorg, 전 게이트웨이신학교 총장)가 “과거를 기념하고 미래를 계획하다”(살전2:1-1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아이오그 박사는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낸 교회”라며 “앞으

로, 50년도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회의 참된 성공은 건물의 크기나 재정 규모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의 삶에 있다”며 “앞으로도 순수한 복음을 지키며 복음의 능력으로 더 많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배에는 주요 교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50주년을 축하했다.

이태경 목사(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장, 엘파소중앙침례교회)는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성도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이민의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믿음의 등불을 밝히며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왔다”며 “사랑이 넘치고, 전도가 활발하며,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계속 성장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Lance Caddel 사무총장(Northwest Baptist Convention)은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건강한 교회

로, 지역과 세상을 밝히는 복음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왔다”며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성경 위에 굳건히 서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강승수 목사(한인 남침례총회 총무)는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지켜온 성도들, 문창선 원로목사님과 송경원 담임목사님,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의 50년이 더욱 기대된다. 하나님께서 타코마제일침례교회를 더 아름답게 사용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예배 중에는 캐나다,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의 선교사들이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타코마제일침례교회가 열방을 향한 복음의 통로로 계속 쓰임받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 이날 예배는 송경원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김민선 기자

美교회들 “한국교회, 종교 자유와 자유민주주의 수호해야”

글로벌복음주의교회연합 성명 발표

미국 글로벌복음주의교회연합(Global Evangelical Churches of America, 이하 GECA)이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최근 발표했다. 이 성명은 미국 남침례교회 목회자이며, 사우스웨스트대학교 기독교학과 석좌교수인 케빈 월드롭(Kevin Waldrop) 박사가 발표했다.

GECA는 성명에서 “최근 한국 정부는 특별검사를 구성하고 기독교 성직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 작전을 감행했다”며 “성경적 진리와 가치를 옹호했던 한 복음주의 목사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투옥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에 대응하여 미국 교회들은 한국 기독교의 보존과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가 필수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임을 확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들이여, 깨어나 굳건히 서서 연합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담함과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

임하라”며 “한국교회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신성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한국교회와 시민들은 교회와 국가의 헌법상의 정교분리를 위협하는 공포와 억압의 정치에 저항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성경적 책임을 공유한다”며 “우리 미국교회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다수가 이끄는 현 한국 정부가 헌법상의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비민주적인 공포 정치와 일방적인 독재압박을 종식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140년 전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한 미국 교회들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거짓, 불의, 악행, 불평에 대항하여 복음을 위해 담대히 일어설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미국 교회들은 한국 목회자들이 현재 한국의 위기가 영적인 것임을 인식하고, 성경적 분별력을 구하며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대응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미국 교회들은 한국 목회자들이 천공산주의 단체들이 조장하는 ‘평화’ 또는 ‘평화 통일’이라는 거짓 주장에 속지 않기를 기도한다. 공산주의가 한국을 장악하면 수백만 명의 기독교 신자들과 자유 대한민국을 옹호하는 사람



미국 글로벌복음주의교회연합의 성명을 발표한 케빈 월드롭 박사 ©글로벌복음주의교회연합

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들이 중국 공산당의 보안법과 감시 통제 하에서 홍콩의 자유가 어떻게 억압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이것이 한국에 대한 현재의 경고가 됨을 인식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GECA는 “우리는 한국의 종교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을 위해 기도한다”며 “한국 기독교인들은 연합하고, 굳건히 서서, 거짓 선전에 맞서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이 영적 싸움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세계 최고 IQ’ 김영훈 씨 “성경 진리 억압… 미국에 망명 신청”

“저는 약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짧지만 단호한 이 문장으로, 세계 최고 IQ 보유자로 알려진 김영훈(사진)(YoungHoon Kim) 씨는 자신의 망명을 선언했다. 그는 10월 30일(현지시간) SNS에 올린 1분 35초 분량의 영어 영상에서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억압받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정치적 망명을 공식 요청했다.

영상 속 김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은 성경적 진리를 억압하고, 기독교인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친북좌파 정권 아래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영상에서 자신을 “기독교인이자 세계 최고 IQ 기록 보유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오늘날 한국 정부는 애국자를 차별하고, 예수님을 전하면 범죄가 되는 사회를 만들었다”며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미국에서 진리의 편에 서고자 한다”고 말



했다.

이어 “한 나라가 진리를 침묵시킬 때, 다른 나라들이 일어나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떠오를 것”이라며 신앙적 결단을 드러냈다.

김씨는 망명 발표와 함께 올린 추가 게시물에서 현 정권을 “친북 반기독교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더 이상 한국이란 나라는 없다. 오직 북한만이 존재할 뿐”이라며 “나는 정치적·종교적 박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 아래서 망명을 신청한 최초의 한국인”이라고 밝혔다.

김씨가 언급한 ‘종교적 박해’는 지난 9월 구속된 부산 세계로교회 순환보 목사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구속됐다. 교계에선 이에 대해 “신앙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김씨는 최근 미국 보수 청년 운동가 찰

리 커크(Charlie Kirk)가 피격된 사건 이후, SNS에 “그의 사명을 이어받아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수호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비종양집권적 자율조직(DAO) 형태의 ‘지적 보수주의 운동’을 세워, 신앙과 자유의 연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달,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함께 모이자”며 미국 내 한인 보수 기독교 네트워크 형성 움직임을 예고했다.

김씨는 SNS 프로필에서 자신을 ‘세계 최고 IQ 276의 기록 보유자’로 소개했다. 그는 현재 미국의 한 신학교에서 신학석사(M.A.) 과정을 밟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신앙을 공개 고백한 바 있다.

학문과 신앙을 병행하며, 그는 “지적 능력은 진리를 위한 도구일 뿐”이라며 “인간의 지성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높다”고 말해왔다.

노형구 기자

B E Y O N D
ENTERTAINMENT
ELEVATING
EXCITEMENT

일상 속 색다른 즐거움이 있는 곳,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WALKERHILL
HOTELS & RESORTS

워커힐의 다채로운 콘텐츠와 함께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 보세요.



MEET NEW ART @ VISTA
비스타 워커힐의 아이 가든, SKYARD에서
최고의 뷰와 함께 세계적인 아티스트
JAYSON ATIENZA의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ART PICNIC
워커힐의 아트 프로젝트 1탄, 아이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예술과 함께하는 아트 피크닉을
즐거 보세요.

KakaoTalk 플러스친구

카카오플러스친구 WALKERHILL
워커힐의 카카오 플러스 친구가 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이벤트를 매일 먼저 받아 보세요.

www.walkerhill.com 문의 1670-0005

“유튜브 ‘관중’, 사랑에 목마른 현대인의 자화상”

제20회 성령 컨퍼런스

유튜브와 SNS에서 관심을 얻기 위해 무리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이른바 ‘관중 (관심중자)’ 현상—LA백송교회와 이러한 현대인의 뒤틀린 욕구의 뿌리를 ‘사랑의 결핍’에서 진단하며, 영적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던졌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람은 끊임없이 인정과 관심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관심으로도 영혼의 공하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난 11월 2일 열린 제20회 성령 컨퍼런스 ‘부흥을 부르는 치유(8) -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창조적인 사랑’ 집회에서 김성식 목사(LA백송교회 담임)는 현대인의 병든 자화상을 날카롭게 짚어내며, ‘하나님의 사랑 회복’만이 진짜 치유라고 강조했다.

LA백송교회는 지난 10월 25일 이순희 목사 초청 찬양콘서트를 시작으로, “부흥을 부르는 치유”라는 주제로 11월 5일까지 11일간 매일 성령 컨퍼런스를 진행했

다.

◆사랑을 구걸하는 사회… “관중은 사랑 결핍의 외침”

이날 메시지에서 이순희 목사는 호세아 11장 1-9절을 본문으로, 무조건적 사랑만이 인간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을 선포했다.

“사랑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그는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극명하게 달라진다”며, 사랑 결핍은 성인이 되어도 관계, 결혼, 부모 역할, 자아 정체성에 깊이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어릴 때 채워지지 못한 사랑은 결혼 후에도 계속 외로움으로 남습니다. 돈과 성공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목사는 사랑 결핍의 사회적 부산물로 ‘관중’ 문화를 언급했다.

“사랑받고 싶어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관중이라고 부릅니다. SNS에서 관심을



LA백송교회 성령 컨퍼런스 현장의 모습. ©교회 측 제공

받기 위해 과한 행동을 서슴지 않죠.”

실제로 일부 유튜브비들이 “좋아요 1만 개 달리면 차에 갈리겠다, 전구를 먹겠다, 생쥐를 씹어 먹겠다, 락스를 마시겠다, 오물 사위를 하겠다” 등의 충격 콘텐츠를 실행하는 현상도 지적하며, “이는 사랑 결핍이 가져온 극단적 왜곡”이라고 일침했다.

또한 미국 심리학자 칼 로저스의 말을 인용해, 현대인이 느끼는 가장 큰 고독의 원인을 ‘자기 상실’이라고 설명했다.

“화려한 문명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 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조건부 사랑의 시대… “하나님 사랑만이 사람을 회복시킨다”

이 목사는 “이 세상에는 인간을 온전히 만족시키는 사랑이 없다”며, 인간의 사랑 결핍과 고통의 근본 원인을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누구에게서도 충분한 사랑을 얻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날 사회 전반에 퍼진 조건부



이순희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교회 측 제공

사랑의 문제를 꼬집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조건부 사랑이 많습니다. 부모의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자녀는 스스로를 부적절한 존재로 여기며, 항상 긴장 속에서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6-7을 인용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조차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고 강조했다.

◆호세아가 드러낸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이 목사는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우리를 볼드시는지 설명했다.

호세아 시대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와 영적 타락에 빠져 있었다. 바알-아세라 숭배 의식은 영적 음란뿐 아니라 육체적 음행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바알이 여신 아스다롯과 성관계를 맺어야 비가 온다고 믿으며, ‘거룩한 장녀’라 불린 여사제가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의식을 행했다.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총 은 30개의 가치)으로 음행한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온 사건은, 하나님께서 영적 불륜에 빠진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의 상징으로 해석됐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범벅이 된 이스라엘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건지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번 성령 컨퍼런스는 이벤트성 집회를 넘어, 성령의 기름부음 안에서 영적·정서·작관계적 영역의 온전한 치유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주디 한 기자

성암교회, 5주년 감사예배 “주께 가는 길이 참된 생명의 길”

두명의 권사 임직식 및 새신자 전도 축제 열려

성암교회(담임 김요한 목사)는 2일 오전 11시 교회 본당에서 설립 5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 드렸다. 이날 예배는 5주년 기념을 비롯해 새신자 전도 축제 및 두명의 권사 임직식도 겸해 거행됐다.

김요한 목사는 요한복음 10장 11-18절을 본문으로 ‘진짜 다이아몬드를 찾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팬데믹으로 세상이 멈춰 있을 때 천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 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게 하였고, 공원에서 예배드리며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행복한 공동체의 의미를 경험했다”며 “지금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감격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 자리는 ‘여기까지 하나님은 도우셨다’는 에베에셀의 고백이 담긴 자리다. 성암교회를 통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는다. 지난 5년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예배는 5주년 기념을 비롯해 새신자 전도 축제 및 두명의 권사 임직식도 겸해 거행됐다. ©토마스 맹 기자

김 목사는 설교에서 인생의 여정을 다이아몬드에 비유하며 “많은 사람들이 돈, 명예, 인정이라는 다이아몬드를 찾아 헤매지만, 진짜 다이아몬드는 우리 마음속, 예수님이 계신 자리”라며 “예수님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며,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선한 목자다. 그분의 손길을 경험할 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고 전했다.

또한 “체상의 길 끝에는 허무가 있지만, 예수님께 가는 길이 참된 길이며 생명의 길”이라며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



김요한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줄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줄게라고 말씀하신다”며 “그분의 손을 붙잡는 것이 가장 귀한 복된 선택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장수 목사(올림픽장로교회 원로)는 축사를 통해 “개척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늘 임직받는 두 분 권사님은 그동안 신앙인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임직은 다이아몬드의 원석과 같아서, 가꾸는 것은 본인들의 몫이다. 두 분 권사님을 통해 성암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크리스 최 목사(CRC교단 Thrive 소속

한인 캐베티는 “좋은 나라란 인류에 이바지하고, 인재를 길러내는 나라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좋은 성도, 신실한 일꾼을 세워서 한다”며 “유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선교에 힘쓰며, 리더십을 존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상면 목사(생명생교회 원로)는 권면사에서 “임직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교회에 기둥이 세워지는 것과 같다. 기둥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더욱 견고해진다”며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사명은 그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다. 모든 성도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 임직받은 권사들의 간증이 있었다.

박헬렌 권사는 “지난 8주 동안 권사 교육을 받으며 권사라는 직분이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지 몰랐다. 열심히 배우고, 눈물의 기도와 섬김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겠다고 다짐했다”며 “배운 대로 지켜야 할 것을 마음에 새기며, 인품을 잘 갖추고 믿음의 본이 되는 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마스 맹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글로벌총회 이지현 목사 안수 및 장립식 거행

대한예수교장로회 글로벌총회(GAKPC) 서부노회 이지현 목사 안수 및 장립식이 지난 11월 2일(주일) 오후 4시 예수생명교회(조준석 목사)에서 거행됐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사회 전 총회장 홍성표 목사), 2부 성찬식(집례 서부노회 김영재 목사), 3부 안수 및 장립식(집례 서부노회 노회장 정완기)의 순으로 진행됐다.

1부 예배에서 최영봉 목사(태평양노회 노회장)의 대표기도에 이어, 디모데후서 2:1-4 봉독 후 김창영 목사(GAKPC 총회장)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2부 성찬식은 김영재 목사의 집례 하에 진행되었으며, 3부 안수식은 정완기 목사(서부노회 노회장)의 집례 하에 김창영 목사가 안수자를 소개하고, 정완기 목사가 안수기도 후, 공포, 착의식, 악수례, 안수증 수여, 안수 및 장립 기념배 수여가 진행됐다.

이날 홍성표 목사, 김창영 목사, 최영봉 목사, 조준석 목사가 축사 및 권면, 축사를 전했다으며, 이지현 목사가 답사하고, 축



가운데가 이지현 목사. 행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 ©주최 측 제공

가 연주 이후 이지현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이날 이지현 목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 글로벌총회 서부노회에서 목사로 임직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까지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워주신 성직을 생명을 다하여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이날 목사 안수 및 장립식 이후에는 서부노회 정기노회가 진행되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이지현 강도사는 성경통신대학을 졸업하고(1990), UCA 학사 및 석사(2018)를 마치고, 아멘교회(고이재성 목사)에서 동역했다. 조셉 리 기자



국내 유일의
공적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푸른씨앗 홍보모델 김성주

☞ 수수료는 **3년간 0원** (*25년 한시)

☞ 국가지원금은 **3년간 20%**
최저임금의 130%(*24년 월평균 273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를 근로자, 사업주에게 각각 10%씩 지원

☞ 안정적 수익률 **14.67% 달성**
2024년 12월 기준 누적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고객센터 1661-007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검색하세요!

직장선교 44주년 ‘제37회 직장선교 전국대회 및 제39회 예술제’ 개최

11월 8일 서울 종로 새문안교회서 언더우드홀에서 열려



(사)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대표회장 이훈 장로, 이하 한직선)가 11월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 지하 2층 언더우드홀에서 ‘제37회 직장선교대회 및 제39회 예술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직선은 44년 전 ‘모든 직장인들 직장선교회를, 모든 직장인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사명으로 설립된 초교파 평신도 선교단체로, 전국 40개 지역연합회와 42개 직능연합회, 8,000개 직장선교회를 아우르는 단체로 성장했다. 매년 11월 초 열리는 직장선교 전국대회 및 예술제는 1년간 한직선 본부와 전국 지역, 직능연합회에서 추진해 온 직장선교의 성과를 격려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뜻을 모으는 한 해 중 가장 큰 규모의 성회다. 올해는 ‘직장선교, 성령의 능력으로 도약하라’(행 1:8)는 주제로 전국 직장선교

회원이 참여하여 직장선교 예배를 회복하고, 직장선교의 부흥의 불길에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비전과 결의를 세우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직선은 지난 9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40일 동안 120명의 직장선교 기도용사가 하루 한 끼 릴레이 금식을 하며 중보기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1부 예배는 안찬율 한직선 총괄본부장의 인도로 시작되어, 최재항 동해지역연합회장이 대표기도를 하고, 양성문 경찰청선교회 총무의 성경 봉독 후 한국직장선교연합장단(지휘 이숙경, 단장 최성환)이 특별찬양을 통해 은혜를 전할 예정이다. 설교는 안성복 세리교회 목사가 ‘성도의 승리’(삼상 17:45)라는 제목으로 전하며, 이훈 대표회장의 대회사, 오광석 이사장의 환영사, 박홍일 명예이사장의 격려사, 이영환 지도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다. 2부 ‘직장선교 44주년 사례발표 및 예술제’에서는 고흥욱 꿈꾸는교회 목사가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다르게 살게 한다’는 주제로 특강을 전한다. 이어 한국직장선교대학, 원주직장선교연합회, 경기직장선교연합회, 전북직장선교연합회 등 4개 지역 및 직능 연합회가 모범적인 직장선교 사례를 발표하며 현장의 이야기를 나눈다. 찬양 예술제에는 울산지역연합회, 경기경찰청선교회, 보훈기관직장선교연합회(교보생명FP), 나주지역연합회, 서울시청기독교교회 등 총 5개 단체가 중창 및 합창으로 출전하여 풍성한 은혜의 시간을 선사할 계획이다. 심사위원 장기웅 교수, 오창호 테너의 심사평과 시상식을 마친 뒤에는 CCM 사역자 송정미 씨가 은혜롭고 영감 있는 찬양으로 참석자들의 마음을 울릴 예정이다. 이훈 대표회장은 “올해의 직장선교를 결산하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예술제를 진행하면서 집체한 직장선교를 활성화하고 기독교 부흥의 건인 역할을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제4회 칼 귀츨라프 글로벌 한글백일장 개최식 성황리 열려

세종대왕의 한글창제 정신과 독일 선교사 칼 귀츨라프(Karl Friedrich August Gützlaff, 1803-1851)의 한글 세계화 업적을 기리는 ‘제4회 칼 귀츨라프 글로벌 한글백일장 개최식’이 최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한글학회(회장 김주원) 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귀츨라프가 1832년 11월에 발표한 한글 논문인 ‘Remarks on the Corean Language’(한글에 대한 소고), 1833년 7월에 발표한 『The Corean Syllabary』(한글의 음절체계)를 조명하고, 2032년 ‘칼 귀츨라프 한글세계화 200주년’을 앞두고 해당 논문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UN 제7공용어로 한글 채택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세계한인여성회총합의회(WKWA) 조규자 총재는 개회사에서 “세종대왕과 귀츨라프의 애민과 혁신 정신을 오늘에 잇는 것이야말로 한글의 진정한 세계화”라며 “한글이 인류의 소통 언어로 확산되고, UN 제7공용어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전 세계 한인 네트워크가 협력하자”고 말했다. 귀츨라프한글문화원 노광국 대표도 개회사에서 “귀츨라프 논문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고 한글을 UN 제7공용어로 채택시키는 일은 세종대왕의 창제 정신과 귀츨라프의 세계화 정신을 계승하는 역사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또 “귀츨라프한글문화원은 학문·문화·선교·산업을 잇는 브릿지뉴딜문화운동을 통해 한글 세계화를 위한 국제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축하 연주와 축하, 격려사 순서가 진행됐다. JB포럼 운영철 대표가 대독한 서면 축하사에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1832년 7월 17일 칼 귀츨라프가 첫발을 내디딘 백령도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귀츨라프 섬 잇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와 황해도 장산-몽금포를 잇는 서해바다를 ‘귀츨라프 평화의 바다’로 조성하기 위한 남북 공동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제4회 칼 귀츨라프 글로벌 한글



주요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귀츨라프한글문화원

백일장’의 주제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과 한글을 최초로 세계에 알린 칼 귀츨라프 선교사, ‘귀츨라프와 원산도 감자의 추억’이며, 미주 한인 입양인 모국방문단 아시아패밀리스(Asia Families)와 함께 한 귀츨라프 선교지(인천-보령 원산도-제주도) 체험수기를 포함한다. 심사 기준은 주제의 명확성(40점), 글의 짜임새(30점), 문학적 표현(30점)이며, 원고 마감은 12월 5일까지 이메일(easttrust@naver.com)로 접수하고, 수상자 발표는 12월 24일, 시상식은 2026년 1월 1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지희 기자

다음세대를 살리자

말할 수 없는 고통, 소리 없는 총알 ‘왕따’

집단 따돌림과 소외 현상, 아이들 사이의 문제가 학교 폭력·글로벌 문제로



신지율 학생회장

◇왕따란? 왕따는 무엇일까? 왕따의 정확한 정의는 어떤 집단 또는 무리에서 특정한 대상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오랜 기간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 또는 그 피해자이다. 흔히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이 왕따라는 명칭 또는 현상은 사실 공식적으로 정의가 된 용어가 아니다. 제대로 된 표현은 ‘집단 따돌림’ 혹은 ‘집단 괴롭힘’이 맞다. 왕따는 1990년대 후반쯤(1997년으로 추측)에 신조어로 시작하여 현재 흔히 쓰이는 속어가 되었다. 이 ‘왕따’라는 속어가 퍼진 뒤, 학생들 사이에서는 ‘전따’, ‘따’ 등 유사한 비속어들이 과열되며 조롱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한국 청소년 개발원에서는 학교에서 다수의 학생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2주 이상의 기간에 걸쳐 심리적·언어적·신체적 폭력, 괴롭힘 등을 행하는 것을 집단 따돌림으로 정의한다. 흔히 왕따, 즉 집단 따돌림이 단순히 학교와 교실이라는 어린이들의 세계에만 속하는 문제라 오해하는데, 사실 왕따 문제는 회사 혹은 동호회 등 성인 사회, 어른들의 사회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이며, 전 세계가 관심을 가져야 할 글로벌 과제로도 볼 수 있다.

◇왕따, 학교폭력의 또 다른 얼굴 집단 따돌림과 소외 현상의 문제는 단순히 학생들 사이의 장난이나 갈등 등으로 치부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집단 따돌림은 사이버 폭력, 언어 폭력, 신체 폭력, 성폭력 등 형태가 다양하고, 선생님 또는 부모님 같은 도와줄 수 있는 어른들이 알아채기 어려운 문제이며, 인간에게 꼭 필요한 학창 생활을 망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이다. 또한 아직 정서적으로 발달이 완벽하지 않은 학생들은 왕따를 당하게 되면 정신적, 신체적 상처와 고통이 엄청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학교 폭력 형태 중 하나이다.

◇숫자가 말하는 현실 2019년 8월 27일, 교육부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학생이었던 410만 명 중 372만 명(90.7%)이 조사에 참여했고, 이중 약 6만 명(1.6%)이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2018년 1.3%, 2017년 0.9%가 피해 경험이었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3년 연속 피해 응답률이 증가했다.

학년별로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이 3.6%, 중학생이 0.8%, 고등학생이 0.4%였다. 2018년과 비교해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0.8% 포인트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중학생은 0.1%포인트 증가했고, 고등학생은 동일했다. 가해지는 같은 반 학우가 가장 많았고, 다른 반 학우가 뒤를 이었다. 피해 장소는 교실(30.6%)이나 복도(14.5%)가 가장 많았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사이버 공간’이라는 응답이 10%를 넘겨 세 번째로 많았다.

◇학교폭력 속에 갇힌 청소년들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따르며, 질문에 응답한 398만 명의 학생 중 6.8만 명 정도가 학교폭력을 경험해 보았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은 다양했다. 언어폭력부터 신체 폭력,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모두 집단 따돌림에서 발견될 만한 행위들이다. 이 중 언어폭력이 2023년 37.1%, 2024년 39.4%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 폭력(17.3%, 15.5%), 사이버 폭력(6.9%, 7.4%)이 그 뒤를 이었다.

◇‘내가 학교에서만 괴롭힐 것 같니?’ 학교 밖에서도 괴롭히는 사이버 폭력 사이버 폭력, 사이버 왕따는 학교폭력의 한 형태로, 핸드폰과 컴퓨터 등이 실용화된 현재 시대에서 점점 늘어나는 학교폭력이다. 왕따 행위 중 하나이다. 특히 핸드폰 또는 전자기기 사용량이 많은 중고등학생들에게 주로 일어나는 학교폭력이며, 학교폭력에서 사이버 폭력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사이버 폭력의 형태로는 대개 단톡방, 특방이라고 불리는 SNS의 단체 채팅방에서 한 사람을 특정지어 폭언 또는 폭설을 해 정신적 충격을 주거나, 인물에 대한 허위 사실을 SNS에 올리거나,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게시판, 플랫폼 혹은 커뮤니티 등에서 조롱 메시지와 악성 댓글을 달고, 심하면 개인정보와 사진 등을 유출하는



집단 따돌림과 소외 현상의 문제는 단순히 학생들 사이의 장난이나 갈등 등으로 치부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것 등이 있다. 인터넷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되어 피의자를 잡기 어렵고 확산 속도가 빨라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한 국정초년정책연구원이 청소년 1,038명을 상대로 조사해 ‘미디어 속 학교폭력 양상 분석’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도출’ 보고서를 보면, 청소년 5명 가운데 1명 이상(20.1%)은 온라인상에서 따돌림이나 욕설 등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번 이상 겪었다고 답한 비율도 3%나 되었다. 흔히 ‘사이버 불링’이라 불리는 이 행위로 인해 많은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고, 심리적 피해를 준다.

◇소외되는 이들을 구하는 방법 우선 소외된 사람들, 혹은 따돌림 피해자들을 돕는 게 우선이다. 정신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는 심리 상담 등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상담 기관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학생 피해자인 경우에는 주위 부모님, 또는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이다. 앞에 말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제대로 처벌받은 학생은 전체에서 약 3%에 불과하며, 증거 불충분이 그 이유로 꼽힌다. 화면 캡처가 필요한 상황에서 불안한 마음에 카톡을 나가는 바람에 증거가 소멸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또한 병원 진단서와 화면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해도 실제로는 교육지청에서도 1~3회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왕따, 집단 따돌림은 이제 전 세계적 문제로 항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제 이 따돌림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없어야 하며, 우리 모두, 그리고 스스로도 따돌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지율 노스런던컬리지에이츠쿨 제주 8학년(문화비전코리아 학생회원)

서울대 출신

골치 아픈 세금문제, 세무사가 해결해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기분 좋은 세무 파트너 송선호 세무사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교회, 목회자 세금신고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고문세무사 차삼준

- 전국 15개 세무서 근무
-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및 송무업무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팀장
- 삼성세무서 재산세과장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2,3국 조사관리팀장
- 종로,서초세무서 법인세 과장

세무사 송선호

- 충북과학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졸업
- 한국세무사회고시회 이사
- 국세청 영세납세지원단 세무사
- 서울시 마을세무사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세무상담 02-3295-3300

세무사 송선호

시리아 가톨릭 대주교 “기독교가 사라지고 있다”

국제사회 긴급 개입 촉구

시리아 중부의 시리아 가톨릭교회 수장이 “기독교가 시리아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긴급한 개입을 촉구했다. 자크 무라드(Jacques Mourad) 대주교는 로마에서 열린 행사에서 “교회는 죽어가고 있다”며 “지금 개혁과 안전 보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독교 공동체의 붕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경고했다.

가톨릭 구호단체 ACN(Aid to the Church in Need)에 따르면, 무라드 대주교(홀스하마나베 관할)는 “시리아 기독교인 탈출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제왕적 정치경제 상황 때문”이라고 밝혔다.

ACN이 최근 발표한 ‘세계 종교자유 보고서 2025’에 따르면, 시리아 내 기독교 인구는 2011년 약 210만 명에서 2024년 약 54만 명으로 급감했다. 무라드 대주교는 “세계 교회와 지역 교

회의 모든 노력이 실패했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신앙이 아니라 절망적인 국가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개혁과 치안 체계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교회의 이탈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년 이슬람국가(IS)에 납치됐던 5개월 만에 탈출했던 무라드 대주교는, 새 정부(아메드 알사라 대통령 체제) 하에서도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과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시리아의 상황을 아프가니스탄에 비유하며 “종교의 자유나 인권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고 크럭스 나우(Crux Now)는 전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과의 평화조약 체결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했다. 특히 골란 고원 통제권 이전 가능성은 다마스쿠스의 수자원 접근을 위협하며 “도시 주민을 노예화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누가 이런 조약을 받아들일 것인가? 인권의 가치는 어디 있는가?”라고 그는 반문했다.

무라드 대주교는 “시리아의 미래에 대해 국제사회가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며, 학술·법조·문화 단체들과의 협력 아래 사법 독립과 사회 정의 회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ACN은 보고서 발표와 함께 ‘세계 인권선언 제18조(종교의 자유 보장)’를 보호하기 위한 청원 운동을 전개했다. 청원은 각국 정부가 종교 박해 피해자에게 긴급·법률적 지원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24년 12월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시리아 전역에서는 기독교 안드루즈알라위파 등 종교 소수자를 겨냥한 폭력이 급증하고 있다.

미국 알라위파 협력 모르하프 이브라힘 박사는 워싱턴 의회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계획된 테러



자살 폭탄 테러로 공격받은 마르 엘리아스 그리스 정교회의 모습.(사진은 기사와 무관) ©기독교일보 DB

캠페인”이라며, 외국 지하디스트아사드 잔당·임시정부 연계 민병대가 폭력에 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3월 지중해 연안에서 약 1,500명의 알라위 민간인이 학살됐으며, 여성과 소녀 다수가 납치돼 강제결혼이

나 성노예로 팔려갔다”고 밝혔다.

기독교 인권단체 ‘인 디펜스 오브 크리스천스(In Defense of Christians)’의 리처드 가잘 사무총장은 “극단주의가 시리아의 종교적 다양성을 대체하고 있다”며 “동서양의 신학적 다리이자 공존의 중재

자였던 기독교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은 시리아 임시정부에 소수 민족 헌법 보호 조항과 책임 메커니즘을 도입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잘은 또 “기독교 공동체의 생존은 국제사회의 외교적·법적 개입에 달려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시리아는 2,000년 신앙 유산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22일 다마스쿠스의 마르 엘리아스 교회에서는 주일예배 도중 자폭 테러가 발생해 20명 이상이 숨졌다. 폭탄 조끼를 착용한 범인은 총격을 가한 뒤 스스로 폭탄을 터뜨렸다. 이 사건은 인권 단체와 교계로부터 강력한 규탄을 받았다.

가잘 사무총장은 “이번 공격은 시리아의 고대 기독교 공동체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보여주는 현실”이라며 “매번의 폭력과 아주로, 시리아는 2,000년 신앙과 문화의 기둥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신앙 이유로 사형 선고 받았던 수단 기독교인 “수감 중 성경 몰래 읽어”

구호단체 ACN, 현지 상황 전해

수단 다르푸르 지역의 마지막 정부 거점 엘파셰르(EI Fasher)가 함락된 이후, 가톨릭 구호단체 ACN(Aid to the Church in Need)가 현지 신자를 통해 참혹한 상황을 전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현재 수단은 신속지원군(RSF)과 수단군(SAF) 사이의 내전 상태에 놓여 있으며 지난해 4월 시작된 엘파셰르 포위전은 최근 수단군이 철수하면서 RSF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양측은 모두 민간인을 상대로 한 공격과 인권 침해로 비판받고 있다. 장기화된 전투로 수백만 명의 주민이 피난길에 올랐으며, RSF는 난민촌을 군사 기지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ACN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마리암 이브라힘(Mariam Ibrahim)이라는 수단 기독교인 여성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녀는 2014년, 이슬람 율법 위반 혐의로 사형과 100대의 태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혐의는 ‘배교’와 ‘간통’이었지만, 실제 이유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브라힘은 “나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



마리암 이브라힘. ©Aid to the Church in Need

인으로 자랐고, 같은 신앙을 가진 남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며 “그것이 죄로 여겨졌다”고 말했다.

그녀는 2013년 크리스마스를 감옥에서 맞았고, 수감 직전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첫날 밤은 두려움뿐이었어요.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뿐이었죠.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 쪽 가족은 나를 버렸어요. 언론은 나를 ‘부정한 자’, ‘배교자’,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수감 생활 중에도 그녀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브라힘은 “성경을 몰래 읽기 위해 성경 페이지를 찢어 머리카락 사이에 숨겼다”며 “화장실 안에서만 몰래 읽을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녀는 “지금도 그때의 성경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며 “사람들이 ‘박해받는 이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고 물으면,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많은 나라에서 성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테러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위협이 아니라, 인류 모두를 위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브라힘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력과 이탈리아 정부의 개입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

ACN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 ‘세계 종교의 자유 2025(Religious Freedom in the World 2025)’에 따르면, 수단의 종교 박해는 최근 몇 년 사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수단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이슬람 극단주의 확산이 기독교인 등 소수종교 박해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2(54억 명)가 “심각한 수준의 종교 자유 침해가 존재하는 국가”에 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경 기자

래퍼 니키 미나즈, 나이지리아 기독교인 박해 규탄… “트럼프의 대응 지지”



그녀는 이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이하 현지 시간) SNS 플랫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글을 올려 “만약 나이지리아 정부가 기독교인 학살을 계속 방치한다면, 미국은 원조를 중단하고 무력 개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전쟁부(Department of War)에 군사 대응 준비를 명령했다”며 “공격이 시작되면 빠르고, 강력하며, 단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급진적 이슬람 세력이 이 학살의 주범”이라며, 나이지리아를 ‘특별우려국(Country of Particular Concern, CPC)’으로 재지정할 것을 시사했다. CPC는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국가에 부여되는 미국 정부의 제재 분류다.

이에 대해 미나즈는 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 글을 읽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녀는 “어떤 집단지도 종교를 이유로 박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더라도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이런 참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대통령과 그의 팀에게 감사드린다. 박해받는 모든 기독교인을 위해 기도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미나즈의 발언에 일부 팬들이 비판을 제기하자 그녀는 “기독교인이 학살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걸 ‘성소수자 문제’로 돌리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에어포스원 탑승 중 기자들과 만나 “지상군 투입이나 공습을 포함한 군사 행동을 검토 중”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그는 로이터통신에 “나이지리아에서 기록적인 수의 기독교인이 살해당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

이에 대해 나이지리아 대통령실 대변인 다니엘 브왈라(Daniel Bwala)는 AP통신에 “미국의 일방적 군사 개입은 허용하지 않겠지만, 종교 공동체 보호를 위한 협력에는 열려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피트 헤셋(Pete Hegseth) 전쟁부 장관 역시 “무고한 기독교인 살해는 즉시 멈춰야 한다”며 “나이지리아 정부가 기독교인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테러리스트들을 직접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이지리아는 수십 년간 북동부의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와 중부 지역의 무장 유목민 세력의 폭력에 시달려왔으며, 이로 인해 수만 명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Open Doors)는 “전 세계에서 신앙 때문에 살해되는 기독교인 중 절반 이상이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다”고 경고해왔다.

한편, 미국의 종교 자유 감시단체 국제기독교연대(ICO)는 트럼프의 CPC 재지정 검토에 대해 “나이지리아 정부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라며 “수많은 피해 가정과 공동체에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미경 기자



새로운 **농**
대한민국 농협

사계절맛 제철기부

사시사철 365일 기부가 제철입니다

사시사철 늘 맛있는 우리쌀로
제철기부에 보답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우리 제철 농축산물을 선택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정부·지자체
그리고 농협이 함께 합니다

NH **농협**

#쌀의 효능

쌀은 위의 기를 평하게 하고
근육을 기르며 속을 따뜻히 해
기운을 돋으며 번열을 제거한다.
또한 소화기병을 가진
허약체질의 환자에게
식이요법의 훌륭한 약재이다.

- 동의보감 쌀의 효능 중에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원하는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기부금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기부금 세액 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농축산물 답례품 제공 기부금의 30% 상당 농축산물 답례품 지급

고향사랑기부 신청 방법

온라인 : 정부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 오프라인 : 전국 농협은행 · 농축협
※ 기부 한도액 : 1인당 연간 2,000만원 이내(법인 불가)

복음은 국경을 넘는다: 지하교회가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크리스토퍼 심슨<사진>의 기고글인 '지하교회가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The underground church has a message for America)를 5일(현지 시각) 게재했다.

크리스토퍼 심슨은 CBMC 인터내셔널의 회장 겸 CEO로, 이 단체는 1930년 미국에서 설립된 기독교 비즈니스 선교 단체로서, 현재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비즈니스 및 전문직 리더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훈련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미국은 지금 끊임없는 감시와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 유럽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심지어 자국 안에서도 미국은 마치 전 세계의 다트판처럼 비난받고 "시대에 뒤떨어진 기독교 국가"라 조롱당하고 있다. 언론은 미국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분열되

었다고 말하지만, 필자는 뉴스가 전하지 않는 한 가지 진실을 보았다. 적대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눈물로 사랑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아시아 각국의 비즈니스 리더들을 세우기 위해 마카오에 있었다. 그곳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본토 중국에서 국경을 넘어 마카오로 들어오는 믿음의 사람들과 카메라도, 환호도, 이름도 없이 눈빛에 걸다만 서린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들은 관광객처럼 감지 않았다. 세상 어떤 정권도 멈출 수 없는 나라의 사절단처럼, 조용하지만 당당하게 걸었다.

강의를 마친 후, 한 여성이 필자에게 다가왔다. 그녀를 "에디스(Edith)"라 부르자, 그녀는 10년 넘게 비즈니스 현장에서 사역하며 임원들을 멘토링하고, 여성들을 제자 훈련하며, 닫힌 문 뒤에서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리더였다. 그녀는 필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미국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위해 계속 담대하게 서 주세요."

그리고 이어진 말이 필자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제발 그들에게 전해주세요. 우리는 그들의 적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이곳의 정부는 우리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계속 엘리트들이 듣는다면 불편해질 이야기를 덧붙였다.

그녀는 지금의 미국 행정부를 사랑한다고 했다.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을 약점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명함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녀의 말은 정치가 아닌 복음의 혈통, 즉 하나님의 가족 이야기였다.

뉴스는 국가를 추적하지만, 하늘은 제



자를 추적한다. 그리고 역사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가족을 통해 여전히 쓰이고 있다.

몇 달 후, 필자는 또 다른 공산국가인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었다. 그곳은 신앙이 감시받는 땅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생명은 살아 있었다. 콘크리트를 뚫고 올라오는 풀잎처럼, 복음이 자라나고 있었다. 현지의 한 의사가 필자를 좁은 골목길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베트남 최초의 기독교 서점이 있었다. 간판도 없고, 사업 계획도 없었다. 다만 어둠 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빛 하나만 있었다. 뒷방에는 파란색 바인더들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중 하나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CBMC. 필자가 섬기는 비즈니스 선교 단체였다. 그 바인더는 사무용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록한 역사적 증언이었다. 그 안에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사업가가 엔지니어를 제자 삼고, CEO가 창업자들을 멘토링하며, 가래 전 회

계표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습들, 호치민에서 하노이에 이르기까지, 복음은 공급망과 스타트업의 회랑을 따라 흐르고 있었다. 경제가 부흥의 강바닥이 되었다. 세상이 속박의 도구로 삼으려던 그 체계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 나르는 통로가 되고 있었다.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이 사실을 보지 못한다. 정치와 언론이 만든 국경선 아래에는 찬란하게 살아있는 세계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 수많은 성도들이 미국을 적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미국을 가족으로 여긴다. 같은 성령, 같은 구주, 같은 미래. 그들은 미국의 자유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자유가 낭비되지 않기를 기도한다. 미국의 혼란은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당신의 용기를 기다리고 있다.

필자는 세계 곳곳에서 2세대 신자들의 눈을 직접 마주쳤다. 그들의 식탁에 필자의 자녀가 앉는다면 상하이든 모스크바든 거기에는 마찰이 없을 것이다. 오직 가족의 온기만 있을 것이다. 그들의 요청은 단 한 가지였다. "우리는 보호를 구하지 않습니다. 돈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전해주세요. 우리는 그들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세계 정세를 모른 체하자는 말이 아니다. 악은 존재하고, 정권은 박

해한다. 그러나 정부는 사람과 다르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과 다르다. 지하교회는 약한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사라져가는 소수가 아니라 이 시대 가장 강력하면서도 보도되지 않은 현실이다. 위기 소식으로만 들려오는 그 땅에서 그들은 여전히 살아 있고, 우리보다 더 깨어 있으며, 더 믿음이 깊고, 더 뜨겁게 미국을 사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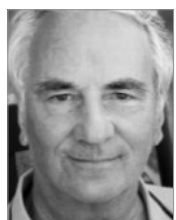
그러므로 필자는 미국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다. 눈을 들어라. 당신의 믿음은 이미 주목받고 있다. 진실한 담대함은 이미 당신이 모르는 교회들을 세우고 있다. 당신의 자유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증보의 대상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마지막을 버티는 이도 아니다. 당신은 하늘이 온 세상에 엮어놓은 거대한 가족의 일원이다. 그 가족은 지금도 공향과 회의실, 무역로와 기술 중심지를 통해 움직이고 있다.

강단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복음을 전한다. 에디스는 동정을 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연대를 구했다. 그녀는 필자에게 이렇게 부탁했다. "우리는 당신들의 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필자는 오늘 이 글을 쓴다.

피와 살은 정부만큼 나눠지 않았고, 교회는 세상이 보는 것보다 훨씬 크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떠돌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잘되고 있다.

최승연 기자

“영혼의 건강을 위한 30일 식단: 말씀으로 채워지는 참된 영적 영양”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제리 맥글로틀린<사진>의 기고글인 '영혼을 위한 30일 도전: 영의 양식을 채우라'(Feeding the spirit: A 30-day challenge for the soul)를 2일(현지 시각) 게재했다.

제리 맥글로틀린은 헌정 공화국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헌신하는 게스트를 대변하고 유대-기독교 윤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한 홍보 기관인 스페셜 게스트(Special Guest)의 CEO로 재직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사람들은 몸을 최고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수천 달러를 들여 유기농, 천연, 가공되지 않은 음식을 구입한다. 칼로리를 세심히 계산하고, 첨가물을 피하며, 매일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자세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삶과 뼈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다. 우리에게도 영혼(soul)과 영(spirit)이 있으며, 이 두 부분도 매일의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

우리의 영혼, 즉 생각과 감정, 지성은 끊임없이 정보를 섭취한다. 모든 뉴스, SNS 게시물, 대화 하나하나가 우리를 고양시키거나 소모시킨다. 잠언 23장 7절은 이렇게 말한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라한즉"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먹어는지가 결국 우리의 인격을 빚어낸다. 분노와 두려움, 부정적인 것을 계속 소비한다면, 우리의 영혼도 그 식단을 닮아간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영양 공급이다. 영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우리의 영원한 부분이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은 하루 세 번 몸을 채우면서도, 영혼은 몇 주씩 굶고 있다. 그들은 '영적 패스트푸드'에 의존한다. 하루 말씀 한 절, 짧은 팟캐스트 하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한 곡. 잠시 맛은 좋지만 금세 사라진다.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4)

참된 영적 건강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 안에서 시간을 들여 천천히 음미하는 데서 자란다. 영혼의 성장도 건강한 식사처럼 준비와 목상이 필요하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한다: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사뱃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시편 1:2-3)

이것은 '패스트푸드' 신앙이 아니라, 뿌리 깊은 생명의 신앙이다. 이제 작은 실험

을 상상해보자. 다크멘터리 <슈퍼 사이드 미>가 보여준 것처럼, 사람이 패스트푸드만 먹고 살면 어떻게 될지는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해보면 어떨까? 30일 동안 오직 '영적 음식'만 먹는다만? 한 달 동안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불평 대신 기도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걱정은 평안으로 바뀌고, 낙심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우리의 영은 강건해지고, 믿음의 뿌리는 더 깊어질 것이다. 아마 이사이야 40장 31절의 약속처럼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잠언 30장 8절은 균형 잡힌 기도를 전한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영적 양식'을 가장 잘 아신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강하게 하며, 살아가게 하는 양식이다.

이제 우리의 '영혼 식단'을 업그레이드할 때다.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으로 영을 채우라. 30일만 시도해보자. 감사와 진리, 은혜로 영혼을 먹이라. 당신의 영혼이 몸만큼이나 건강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최승연 기자

“성경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

한규삼 목사, 2025 다니엘기도회 넷째 날 강연

2025 다니엘기도회가 지난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서울 오윤교회(담임 주경훈 목사)에서 개최되어 오프라인,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넷째 날인 4일 저녁, 한규삼 목사<사진>(총현교회 담임)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디모데후서 3:16-1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 목사는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은 신앙의 출발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오는 감동은 인간의 지혜로 얻을 수 없는 기쁨이다. 성경은 단순한 지식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자리다. 말씀을 높이는 태도 자체가 곧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행위이며, 성경을 귀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귀히 여기신다"고 했다.

그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남긴 영적 유언이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디모데에

게 '말씀에 전념하라'고 당부하며, 그 안에서 은사를 다시 불붙게 하라고 격려했다. 은사는 인간의 재능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성령이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불꽃이다. 말씀이 깊이 새겨질 때 그 은사는 회복되고, 신앙은 다시 타오른다"고 했다.

이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그 감동이 독자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 말씀은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은 단순한 도덕적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통로이며, 책망은 우리 안의 어둠을 드러내 치유로 이끄는 빛이다. 바르게 함은 무너진 영혼을 일으키는 회복의 과정이며, 의로 교육함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우리를 세우는 훈련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훈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인내와 자비를 배운다. 이 성품은 단순히 우

리 안에서 자라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할수록 삶의 방향이 바뀌고,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난다"고 했다.

또한 그는 "성경이 주는 책망은 인간의 꾸밈음과 다르다. 그것은 우리의 상처와 교만을 드러내고, 빛으로 치유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책망하신다. 누군가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들을 줄 아는 사람은 그 책망을 통해 새 힘을 얻는다. 책망을 들어침으로 받을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부어지고 영혼은 다시 일어난다"고 했다.

끝으로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의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된다. 그 의는 우리의 삶 안에서 열매로 드러난다. 선함과 의로움, 진실함이 우리의 인격 속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성경을 읽는 우리는 사실 말씀에 의해 읽히는 존재다. 그 말씀을 우리를 비추고 새롭게 하며, 마침내 예수의 의로 빛나는 삶으로 이끈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THERE IS A BEAUTY THAT REMAINS WITH US AFTER WE'VE STOPPED LOOKING."

CORY RICHARDS, PHOTOGRAPHER AND EXPLORER, WEARS THE VACHERON CONSTANTIN OVERSEAS.

VACHERON CONSTANTIN
GENÈVE

ONE OF
NOT MANY.

“나이지리아의 기독교 박해: 선동이 아닌 현실에 응답해야 할 때”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라이언 브라운(사진)의 기고글인 ‘나이지리아의 기독교 박해: 선동이 아닌 현실에 응답하다’(Christian persecution in Nigeria: Responding to reality, not rhetoric)를 4일(현지시각) 게재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최근 며칠 사이, 나이지리아의 종교 자유 위기가 상반된 서사 속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한 나이지리아 정부 고문은 알자지라(AI Jazeera)와의 인터뷰에서 “나이지리아에는 기독교인에 대한 집단학살(genocide)은 없다”며, 수많은 죽음과 이주 사태를 단지 “민족적자원 갈등”에 불과하다고 치부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나이지리아를 ‘특별우려국가(Country of Particular Concern)’로 지정했고, 기독교 박해가 계



속될 경우 군사 개입까지 언급한 바 있다. 이 논의를 가장 큰 위험은, 이러한 말싸움이 우리가 도와야 할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을 오히려 잊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장에서 기록된 현실은 끔찍하다. 실제 사람들이, 실제 신앙 때문에 폭력을 당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수사나 감정이 아니라, 진실에 기반한 옹호다. ‘오픈도어스(Open Doors)’의 세계 박해 지수(World Watch List)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신앙 때문에 살해된 4,476명의 기독교인 중 3,100명이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했다. 또한 신앙 때문에 납치된 사람 3,775명 중 2,830명이 나이지리아인이었다.

오픈도어스는 ‘집단학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법적으로 매우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단어이며, 증명되지 않은 주장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단어를 피한다고 해서 박해의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이지리아 중

부와 북부 전역에서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폭력이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을 전체가 지도에서 사라지고 있다. 교회는 불타고, 목회자들은 납치되고, 가족들은 밤에 도망쳐 평생 살아온 집을 뒤로한 채 맨발로 도피한다.

공인이 “박해는 없다”고 부정하거나, 또 다른 이가 “군사 개입”을 주장할 때, 초점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서 정치적 논쟁으로 옮겨간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도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으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쫓겨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며, 박해는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아들을 묻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목자가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한 이들의 증언을, 잿더미가 된 교회를 바라보는 목회자의 절규를 듣는다. 이 이야기들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공포 속에서도 신앙을 붙잡은 사람들의 실제 삶이다.

물론 ‘단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정부 관계자들이 박해를 부정하거나, 국제 사회가 무력 개입만을 논의하는 것은 희망의 끈을 놓게 만들 뿐이다. 먼저 고통받는 교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나이지리아가 다시 ‘특별우려국가(CPC)’로 재지정된 것은 옳은 방향의 한 걸음이다. 오픈도어스 아프리카 사역 대변인 조 뉴하우스(Jo Newhouse)는 “이 조치는 문제가 대규모이자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며, 나이지리아의 가장 취약한 이들이 겪는 고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군사적 개입이 아니라, 책임성과 보호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 국제 압박을 가능하게 한다.

미국과 국제 사회는 외교 채널을 통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 현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공정한 가해자 처벌, 폭력 억제,

공동체 회복이다.

시민들도 역할이 있다. 오픈도어스는 ‘Arise Africa 캠페인’을 통해 유엔에 전달할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이는 폭력으로부터 신앙 소수자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법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고, 파괴된 공동체를 회복시키자는 구체적 행동을 촉구한다. 작은 서명 하나가 모여, 박해받는 이들이 결코 잊히지 않았음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

정책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공감과 기도다. 전 세계 교회는 인식 확산, 후원, 그리고 중보기도를 통해 나이지리아의 형제자매들과 연대할 수 있다. 성경은 “한 자제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자제가 함께 아파한다”고 말한다. 이 문제는 정치나 국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문제다.

어떤 이는 여전히 용어와 정의를 두고 논쟁할 것이다. 그러나 단어의 선택이나

정치적 수사에 몰두하다, 피 흘리고 부서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묻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집단학살’, ‘민족 청소’, ‘박해’ 어느 단어로 불리든, 결과는 같다. 공동체는 무너지고, 신앙은 시험당하며, 희망은 위태로워지고 있다.

분열된 세상 속에서,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일은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과제다. 신앙의 자유는 정치적 사안 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에 관한 일이다.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인들은 특권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보호받을 권리와 평화를 누릴 권리를 요청할 뿐이다. 그들의 물음은 간단하다: “세상은 아직 우리를 위해 현명하게 응답할 마음이 있는가?”

우리의 대답은 반드시 “그렇다”여야 한다. 그리고 그 “그렇다”는 말은 협박이나 부정이 아니라, 그들의 존엄을 세우고 폭력의 근원을 해결하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연대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최승연 기자

무엇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가: ‘오직 믿음’(Sola Fide)의 핵심 논쟁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R.C. 스프로울(사진)의 기고글인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What was the cause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를 2일(현지시각) 게재했다.

R.C. 스프로울은 리고니어 미니스트리(Ligonier Ministries)의 설립자이자, 플로리다주 샌퍼드에 위치한 세인트 앤드류스 채플(Saint Andrew's Chapel)의 첫 번째 설교 및 교육 사역 목사, 리포메이션 성경대학(Reformation Bible College)의 초대 총장, 그리고 테이블톡(Tabletalk) 매거진의 편집 주간으로 활동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은 다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른다. 어떤 이들은 “종교개혁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다”고 말할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적 기독교 신앙이 회복된 최고의 시기, 곧 신앙의 황금기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문제는 종교개혁 자체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 역사상 가장 큰 분열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가 “종교개혁에 무슨 문제

가 있었는가?”라고 물을 때, 여기서 ‘문제(matter)’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너한테 무슨 일이야(What’s the matter with you)?”라고 묻는다면, 보통은 뭔가 잘못되었거나 결함이 있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다르다. 필자가 묻는 것은 “종교개혁의 본질, 곧 그 실질적 요인은 무엇이었는가?”이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물질적 원인(material cause)’이 무엇이었느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떻게든 물을 수 있다. “16세기에 그토록 큰 결과를 초래한 이 거대한 분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는가?”

역사학자들은 종교개혁의 원인을 논할 때 흔히 아리스토텔레스의 구분을 따른다. 그는 어떤 사건의 형식적 원인(formal cause)과 물질적 원인(material cause)을 구별했다. 형식적 원인이란, 지적·사상적 배경으로서 기독교 신앙의 최종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었다. 이는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라는 주제 아래 다루어진다. 반면 물질적 원인, 즉 실제 논쟁의 핵심은 ‘칭의(justification)’ 교리였다. 종교개혁의 입장은 이를 간결한 라틴어 표현 ‘Sola Fide’(오직 믿음)로 요약한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다섯 가지 ‘솔라(Five Solas)’ 가운데 첫 번째이다: ▲ Sola Fide (오직 믿음: 칭의는 믿음으

로만 주어진다) ▲ Sola Gratia (오직 은혜: 구원은 은혜로만 주어진다) ▲ Solus Christus (오직 그리스도: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 Sola Scriptura (오직 성경: 신자의 양심을 구속하는 유일한 권위는 성경이다) ▲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속한다. 이 중 Sola Fide, 곧 ‘오직 믿음’이야말로 종교개혁의 중심 주제, 물질적 원인이었다.

개혁자들은 인간의 칭의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선언했다. 이 교리를 이해하려면, 당시 로마 가톨릭이 이해한 ‘칭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이 논쟁은 결코 “바늘 끝 위에서 천사가 몇 명 설 수 있는가?” 같은 사소한 신학 논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을 겨냥한 문제였다. 왜냐하면 칭의의 본질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설 수 있는가?”

오늘날 ‘칭의 교리’는 그 중요성이 심각하게 폄하되어 있다.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는 방식에 대한 교리적 차이가 교회를 나눌 정도로 중대했지만, 지금은 거의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다. 오늘날의 시대는 상대주의와 다원주의의 시대다. 사람들은 절대 진리가 없다고



말하며, 다양한 진리관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교리는 우리를 나누어선 안 된다.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신학성경은 사도적 가르침 속에서 올바른 교리에 대한 깊은 우려로 가득하다.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는 이 점을 잃어버렸고, 우리는 그 이유를 물어야 한다. 많은 이들이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복음을 듣고, 교인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 그들은 외형상 신자이

지만,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지옥의 심판 아래에 있다.

시편 130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묻는다: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신다면, 주여, 누가 서리이까?” 답은 분명하다. 아무도 설 수 없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때 의롭지 못한 자는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복음을 그렇게 가볍게 다루지 않았을 것이다.

종교개혁 시대 교회는 심판의 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 지옥의 실재를 믿었다. 그래서 당시의 중심 질문은 단 하나였다.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날 사람들은 구원을 ‘이 세상’의 문제 해결로 생각한다. 나쁜 습관, 중독, 사회적 실패, 심리적 결핍, 인간관계 문제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성경적 구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핵심 질문은 이렇다: “죄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죄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가?” 놀라운 사실은, 로마 가톨릭 교회 역시 ‘믿음’, ‘은혜’,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를 믿었다는 것이다. 16세기 당시에도, 지금도 로마 가톨릭은 칭의가 믿음과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

를 통해 주어진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오직(alone)’이라는 단어가 없었다.

가톨릭은 ‘믿음 + 행위’, ‘은혜 + 공로’, ‘그리스도 + 우리의 내재적 의가 함께 칭의를 이룬다’고 보았다. 반면 개혁자들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공로로 칭의에 아무 역할이 없다”고 선언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이다.

찬송가 작가 어거스터스 롬베리다는 이렇게 노래했다: “내 손에 아무 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주의 십자가만 붙들니다.” 로마 가톨릭은 세례(baptism)를 칭의의 도구적 원인(instrumental cause)이라 가르친다. 즉, 세례를 통해 ‘칭의의 은혜’가 영혼에 주입(infusion)된다고 본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단호히 말했다. 칭의의 도구는 세례나 고해(참회)가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며,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게 한다는 것이다.

종교개혁은 단순한 교회 분열이 아니라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는가’라는 신앙의 근본 문제에 대한 응답이었다. 그 대답이 바로 Sola Fide,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였다.

최승연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가계의 기회를
• 개인연세저금 매입인도
•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출발기금

침체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저형용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id (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혁신펀드 • 경로 선택금융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전문기업)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순례자의 노래(15) ‘밤새 부른 해피송’

본문: 시134:1-3
설교: 인천신기중앙교회
이희우 목사



최대복 목사의 『예배에 목숨을 걸라』는 책이 있다. 200명에서 불과 몇 년만에 15,000명 대형 교회로 성장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예배였다고 한다.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 자리만 채웠다가 가는 예배가 아니라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온 맘 다해 예배한 것, 성도들이 예배에 목숨을 거니 신앙이 뜨거워지고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고 무기력한 심령이 새 힘을 얻고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다. 그들은 조금만 늦어도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만나려고 오는 사람이 어슬렁거리며 오는 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태도가 아니기에 그런 사람에게는 예배당 문을 닫았다. 그래서 성도들은 미리 나와서 기도로 준비한다. 예배에서 은혜받지 못하면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믿고 예배에 목숨을 건 거다. 그렇다. 그들에게 예배는 하기전 영혼에 양식을 공급하는 영혼의 식탁이고 생명의 통로, 변화와 충전의 시간이다. 하나님께 사랑을 쏟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의 열정을 배워야 한다.

문는다. 예배가 생명줄 맞나? 영혼의 식탁 맞나? 명심하라. 예배가 밥이다. 거를 수 없다. 예배가 땀줄, 생명의 통로이다. 용광로처럼 모든 근심을 녹이는 기도하고 모난 곳을 날린 검처럼 도려내는 말씀과 천군 천사의 소리처럼 심령을 뒤흔들게 하는 찬송, 그리고 고독을 몰라지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예배, 생명을 유지하는 영적 종합 비타민 같은 예배,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인생이 바뀐다.

시편 134편에도 오직 예배가 답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밤에도 예배를 위해 성전에 서 있다. 예배를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으로 여기고, 삶의 구심점이자 원동력으로 여기며 예배에 목숨을 걸고 먼 길을 달려온 순례자들, 이제 성전에 머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축제의 마지막 밤, 성전을 떠나는 게 너무 아쉬워 밤에도 성전을 찾을 수밖에 없다.

‘밤’이란 단어가 시선을 끈다. 원래 구약시대에는 정기적인 밤예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늦은 밤까지 철야하며 성전을 지키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 ‘밤에 여호와와 집에 서 있는 여호와와 모든 종들이’(1절), 이사야 30장에 보면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29절)라고 했는데, 순례자들이 밤새 여호와를 송축한 거다.

심장이 쉬지 않고 피를 뿜어내듯 우리 영혼의 심장이 기도와 찬양을 실재 없이 뿜어내는 교회, 그래서 순례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찬양으로 뜨거웠던 바로 그날 밤 예루살렘 성전처럼 우리 교회가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하고, 은혜로 행

복한 교회 되기를 기대하며 시편 134편을 “밤새도록 부른 해피송”이라는 제목으로 불러 본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행복

시편 134편도 133편처럼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다. 그러나 짧아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예배의 부름과 설교, 그리고 축도를 갖춘, 심오함이 담긴 시다. 1-2절은 순례자들이 야간 근무자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향하여 외친 것이고, 3절은 성전을 떠나는 순례자를 향한 제사장의 축도였던 것 같다. 교독문 같은 교송으로 이해하면 된다.

시는 “보라”(Behold)라는 말로 시작된다. “보라 밤에 여호와와 집에 서 있는 여호와와 모든 종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1절), 시인에게 송축은 기쁨이고 행복이다. 그래서 함께 “여호와를 송축하자”고 한다. 얼마나 행복한지 2절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또 선포한다. 이 ‘송축하라’는 단어는 3절에 언급된 ‘복’과 같은 단어, ‘바라크(בָּרַךְ)’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복’이라는 뜻으로 시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이다. 영어 번역본에 보면 “bless the LORD”, “bless you”로 번역했다. “하나님을 축복하라” “당신을 축복해요”라는 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말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아니다.

시편 95편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6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무릎을 꿇자”가 ‘바라크’상대방의 능력이나 지위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을 인정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라는 찬양이다.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바라크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데 그 복은 능력, 위대함의 복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찬양은 존귀함이고 승리이며, 충만함이자 탁월함이다.

시인은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이다”(3절), 찬송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한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 기억하나? 시편 8편에서 다윗이 불렀던 행복의 노래,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1절),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며 경탄했다. 비 온 뒤 사람들을 부르는 무지개, 해 질 무렵 붉게 물들어 타는 듯한 저녁노을, 황혼과 함께 밀려와 밤하늘을 밝혀주는 천구 같은 달, 그리고 반짝반짝 웃으며 손짓하는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행복에 젖어 主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오니... 主” 다윗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미켈란젤로(Michelangelo)는 이 천지창조에 감동받고 4년 동안 늙거나 뒤로 바뀐 채 시스템 천정화 작업을 했다. 얼굴에 무수히 화반축이 떨어

지는 것을 감수하며 프레스코화(Fresco)를 그린다. “사람이 무엇인가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인가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시 8:4),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부르는 찬양, 이제 곧 성전을 떠나도 나를 케어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울려드리는 찬양, 우리도 순례자들처럼 해피송을 부르며 살아야 한다.

◆손을 들고 송축하는 행복

시인은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2절)고 한다. 창세기에 보면 역사가 예배에 의해 갈라진다. 농사꾼인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예배드렸고, 목동인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예배드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다. 이유는 하나님이 삶을 보시기 때문, 예배 후 가인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께 화를 낸다. 교만한 거다. 그는 예배 실패의 책임을 동생에게 전가하고 증오심으로 동생을 죽인다. 삶과 예배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거다. 반면에 아벨의 예배는 허브리스에 보면 믿음의 예배로 평가된다. 결국 아벨은 예배 성공으로 순교자가 되지만 가인은 예배 실패로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 방랑자가 된다.

그 결과 가인은 자손들까지 버림받는다. 후손

용광로처럼 모든 근심을 녹이는 기도와 날선 검처럼 도려내는 말씀...

영적 종합 비타민 같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인생이 바뀐다

라맥은 두 아내를 취한 음란한 사람의 조상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유랑자라는 뜻, 하나님을 떠나 유랑방황한다. 이 세상을 헤매는 거다. 후손들 중에 구원의 사람이 없다. 제사도 없다. 반면에 아벨을 대신해 이어지는 셋의 자손 가운데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온다.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리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다. 그 축복이 이삭과 야곱으로, 요셉으로 이어지며 심히 창대케 되고, 이어서 모세가 나오고 여호수아가 나온다. 한 사람도 예배와 끊어진 사람이 없다. 그 후손들이 계속 예배드리며 살면서 예수님까지 이어진다.

예배 성공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예배에 축복이 있다.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기브온으로 올라간 거다. 취임 파티하려고 간 게 아니다. 찾아오는 사람들 만나려고 간 것도 아니다. 그는 기브온에서 일천번제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 그 모습에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예배가 상달되었다며 소원을 물으신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자 그에게 지혜는 물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신다.

예배는 행복의 다짐들이다. 그렇다면 자제가 중요한데 134편 시인은 너무 행복해서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외친다. 손을 드는 행동, 시편에서는 주로 기도하는 자세다. 시편에서의 기도는 ‘찬양한다’ ‘예배한다’는 의

미와 일맥상통하는 것.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송축한다. 손을 든 것은 기쁨과 평화의 표시, 그런데 언제부턴가 찬양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마치 우리의 즐거움에 있는 것 같더니 결국 사람들은 기쁨과 평화를 상실하고 산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영적으로 궁핍하다. 손을 들어야 한다. 손을 들면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아말렉 족속이 길목을 막는다. 전쟁이 벌어진다. 그런데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전황이 펼쳐진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을 받쳐주며 모세로 하여금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게 도와주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친다(출 17:8-13). 손을 든 게 승리를 불러온 거다.

시편 63편에 보면 다윗은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3-4절), 평생 주님을 송축하며 손을 들겠다고 한다. 구원을 믿는 감사, 인도하심과 지켜주심, 소원성취를 확신하며 손을 들겠다고 한 거다.

감사하거나 사랑하면 손을 들고, 간절하면 두 손 들어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나는 아

장소는 ‘시온’, 성전이 있는 시온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발전소, 시온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한 힘이 흘러나간다.

어디를 가든 순례자들이 복을 누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축도를 한 건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예배자를 축복하신다는 거다. 아브라함이 그랬다. 부름받은 이후 한평생 예배 중심으로 산 아브라함, 그는 예배의 조상이 된다. 어디를 가든 단을 쌓고 예배부터 드렸다. 한글 개역으로 보면 “아브람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더니”(창12:8), “아브람이 장막에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창13:8), 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드렸다는 것, 주목할 것은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표현이다.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 드리는 거다. 기억하라. 독자 이삭까지 제물로 드려려 했던 아브라함은 철저한 예배의 사람이었다(창22:9-10).

하나님은 예배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하늘을 우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창15:5),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창17:2),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도 아직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창22:16-17)...

이응규 선교사의 『내려놓음』에 보면 몽골 베르흐 지역의 예배 처소를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가 소개된다. 주일 예배를 드리던 중 ‘벨러트’라는 자매가 몸에 땀이 밤뻑이 된 채 교회에 들어왔다. 이 자매는 기도를 통해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린 자매였다. 이 자매가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 찾기 위해 어디저리 뛰어다니다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소 찾는 것을 중단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처로 달려왔던 거다. 몽골에서 소는 삶의 기반, 재산목록 1호이다. 소 한 마리가 보통 사람의 1년치 월급과 같은데 믿은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이 자매가 예배를 위해 결단을 내린 거다. 선교사는 이 결단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자 밖에서 소 울음 소리가 들려왔다. 잃었던 소가 집이 아닌 예배 처소로 찾아온 거다.” 이거다. 소 찾는 기쁨보다 예배의 기쁨을 알고 예배를 선택했는데 소 찾는 기쁨과 예배의 기쁨, 모두를 얻었다. 예배의 문을 열면 하늘 문이 열린다!

시므온과 안나는 성전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아기를 안고 찬양했고(눅2:28, 눅2:36,37), 고넬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다 성령 충만 받았고, 루디아는 강변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다 바울을 통해 주님을 만나 유럽 복음화의 선구자가 되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거다. 영원토록 해피송을 부르는 행복한 순례자 되기를 축복한다.

SAMJIN 삼진제약

발열

인후통

몸살

근육통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쿨다운정

30정

광고심의필: 2022 - 1618 - 003300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벤조티아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브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건통(어깨결림), 타박통, 골절통, 염증통(염증통),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시를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있을수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 080 - 082 - 1234 (수신자부담) www.samjinpharm.co.kr

호교와 이단 연구

최철호 목사
한국교회연합
바른신앙수호위원장



I. 들어가는 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더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논고를 ‘호교론’(護敎論)이라 일컫는다. 호교론은 인류 역사에 있어 영원한 숙제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변증함과 동시에, 대적점에 있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을 수호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난하고도 지속적인 문제이다. ‘이단’(異端)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이렇다. “자기가 신봉하는 길과 달리 별도의 길을 이룸. 전통이나 권위에 반항하는 것. 그리스도교의 신조에 반대함.” 한 사법부가 내린 법적 정의는 이렇다. “특정 교단의 권위에 의하여 배척된 교리 또는 집단.” 이와 같이 이단에 대한 사전적 정의 내지 법적 정의는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의 여지를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이단에 대한 판단이 교파와 교단에 따라 상이한 준거에 의해 정의되거나 적용되기도 한다. 하여튼 이단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신앙을 견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소고(小考)를 다음과 같이 전개코자 한다.

II. 성경의 언급
한글개역성경에 ‘이단’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하이레시스’(αἵρεσις, sect)로, 신약성경에 모두 5회 등장한다(행 24:5,14; 갈 5:20; 딤후 3:10; 벧후 2:1). 하이레시스는 ‘분파, 종파’의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개념인 ‘이단’과는 의미상 다소 차이가 있다 하겠다. 왜냐하면 수식어가 붙지 않은 하이레시스는 단지 분파나 종파를 의미할 뿐이기 때문이다. 복음의 진리를 그릇되게 혹은 왜곡시켜 전하는 자들을 일컫는 용어로 ‘거짓 선지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프슈도프로페데스’(Ψευδοπροφήτης, false prophet)이다. 이 단어는 프슈데스(ψευδής, 거짓말하는, 거짓의)와 프로페데스(προφήτης, 예언자)의 합성어이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모두 11회(마 7:15; 24:11,24; 막 13:22; 눅 6:26; 행 13:6; 벧후 2:1; 요일 4:1; 계 16:13; 19:20; 20:10) 등장한다. 구약성경(수 13:2)에서 한번 ‘거짓 선지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비’(נבי, prophet, ‘선지자, 선견자’)는 문맥의 의미상으로만 거짓 선지자임을 가리킨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마 7:17),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마 24:24)고 엄히 경고하셨다. 이단과 거짓 선지자는 같은 범주에 속하며,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유향불 못에 던져져 고통 받게 될 것이다(계

20:10).
III. 교부들의 호교 활동
호교론(護敎論)은 교부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였다. 유스티누스(Justinus, 100-165년 경)는 《첫째 호교론》,《둘째 호교론》을 저술하였고, 테오�필루스(Theophilus, 120-185)는《아우톨리쿠스에게》를 저술하였고, 테르툴리아누스(Tertullianus, 155-230)는《호교론》,《그리스도의 육신론》을 저술하였고, 오리게네스(Origenes, 185-253)는《켈수스 반박》을 저술하였다. 모두 호교론서이다. 회심하기 전 약 10년 간 이단 마니교에 빠졌던 아우구스티누스(Aurelius Augustinus, 354-430)는 회심 후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그가 쓴《신국론》,《그리스도교 교양》,《잡된 종교》,《삼위일체론》,《아카데미학과 반박》,《질서론》,《영혼 불멸》,《마니교도 반박》등은 모두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호교론의 변증서들이다. 교부는 아니지만, 과학자이자 사상가인 파스칼(Blaise Pascal, 1623-1662)은 31세 때 강렬한 종교적 체험을 한 후 기독교에 대한 호교론을 집필하다가 완성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였는데, 그의 유가족들과 친구들이 유고를 정리해서 간행한 것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팡세》이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교회가 ‘파문’ 혹은 ‘이단’ 등의 말들을 만들었던 것은 쓸데없는 짓에 불과하였다. 사람들은 교회의 의도와는 반대로 이 말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은 현대의 이단 연구와 관련하여 일침을 가하고 있다.

IV. 이단 연구 활동과 책임
교부들은 성경에 해박한 탁월한 신학자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교부들이 호교론을 논함에 있어 보여준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신학 교리에 대해 성경을 근거로 치열한 논거를 전개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이 그릇된 것임을 논증하였지만, 이단 감별사 노릇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중세 들어 공교회와 교권을 방자하여 수많은 부녀자들을 악령에 사로잡힌 이단으로 정죄하여 마녀 사냥함으로써, 호교 및 이단 문제를 엉뚱한 방향으로 오도(誤導)한 역사적 과오가 특출하다. 호교를 위한 이단 연구와 논증은 높은 전문성을 요한다. 성경과 신학 및 교리에 정통함은 물론, 깊은 영성도 겸비해야 한다. 지식과 지혜에 대한 깨달음은 이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성령의 조명에 의한 영적 통찰력을 갖추어야 한다. 영적 통찰력을 영성(靈性)이라 할 때, 그에 수반하는 영적 체험 또한 중요하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영적인(πνευματικός)프누마티코스, spiritual, 신령한, 신비한) 것을 전제한다.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4:24),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딤후 3:16). 따라서 신앙의 바탕은 본질적으로 영적이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산다는 하나님의 계시는 영적 통찰(깨달음) 없이는 이해도 믿음도 온전치 못하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영에 대



한 깊은 통찰과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서방신학, 그리고 서방신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온 한국교회의 토양은 영성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를테면, 서방신학자들은 라틴어 anima(soul, 혼)라는 용어를 무수히 사용하는 반면, spiritus(spirit, 영)라는 용어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그들이 남긴 숭한 저술을 통해 흔히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과 신학 및 교리에 탁월한 전문성과 깊은 영성을 갖춘 자가 이단 연구 및 논증에 종사토록 해야 한다. 각 교단 총회에서 의례적으로 ‘이단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질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그 직무에 관여하여 그 결과물을 총회에 헌의하고, 그리하여 어떤 특정인을 이단으로 정죄 공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은 교리와 신학을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 종파별(교단별) 교리의 차이점이 엄연히 존재하는바, 이를 숙지해야 한다. 신학 내지 교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뿐이다. 신학은 얼마든지 다양한 이론을 제시할 수 있고,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거쳐 수정되거나 폐기되거나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된다. 한편, 교리는 오랜 교회 역사와 전통 속에서 공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 정립된 것으로 모든 교회가 존중한다. 신조는 교리를 더욱 축약하여 공교회의 이름으로 공포된 것인바, 우리의 신앙고백으로 삼는다. 하지만 교리가 성경을 우선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자신이 속한 교파(교단)의 교리나 신학을 잣대 삼아 타인을 무조건 판단 정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단성 여부를 조사할 때에는 대상자의 출판된 책, 공개된 자료, 인터넷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것들 외에도, 반드시 그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빈약한 자료에 의거 단정

적으로 판단 정죄하는 것은 범죄 행위에 다름 아니다. 성경 해석에 대한 차이를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성경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용어를 잘못 사용하였다가, 후에 오류를 인정 수정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 윤라도덕에 속한 문제를 이단 감별의 잣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불의에 대해 선지자적 목소리를 낼 때,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반한다고 하여 이단으로 억으려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다. 한국 교계의 병폐는, 한 번 이단으로 낙인찍히면 영원한 이단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다. 이단이 아님이 밝혀졌을지라도 그에 따른 회복 조치의 노력이 거의 없다. 이단 정죄와 관련된 추악한 금전 문제는 여기서 논외로 하자. 하지만 억울한 이단 혐의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고 회복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여생을 보내야 한다면, 그 비극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마땅히 그런 정죄를 내린 사람이나 단체, 총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직고의 회계(會計)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롬 14:12). 정죄(定罪, judgement)는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주권이 며, 결코 인간에게 위임된바 없다. 따라서 이단 연구는 논증을 통해 사람들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각심과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V. 성령혜방직
성경에 아주 엄중한 말씀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마 12:31). 성령 훼방죄를 일컬을 이다. ‘훼방’으로 번역된 헬라어 ‘블라스페미아’(βλασφημία)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을 의미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인 ‘성령 하나님’으로 지칭하였으니, 하나님의 역사(役事)하심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활동)하심에 대한 모독(훼방)은 매우 포괄적이다. 어

떤 행위가 이에 해당되는지 가능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성경이 성령 훼방죄에 해당하는 죄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점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긴장케 한다.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간이 어찌 가능하고 제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분의 섭리와 경륜에 대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임하신 다스림(통치)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그분의 역사와 은사를 인간이 제한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한 그리스도인을 심볼리 자신이 속한 교단 교리로 제한하고, 성경 해석의 다양한 견해를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제한하여 판단, 정죄, 공표하는 것은 성령을 훼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아니겠는가. 이단감별사 노릇은 하나님께 속한 주권을 도적질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2장 31절은 참으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다.

VI. 나가는 말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관점과 방식도 변화를 거듭하는바, 코로나 이후 AI가 초래하는 세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따라서 바른 신앙 수호와 이단 대처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이미 우리의 인식과 논증, 경험으로 기정사실화 된 이단들에 대하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주의를 기울일 일만 남았다. 작금 복음의 진리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최대 세력은 다음의 세 가지라고 본다. 첫째, 쿼어신학(동성애, 양성애, 수술 없는 성전환 주장, 젠다이즘, 동성부부 인정, 이를 뒷받침하는 사이버 신학)이다. 동성애의 사조는 이제 세계 여러 나라가 국법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동성애는 옛 언약에서 가증한 행위의 중대범죄로 정죄한바(레 18:22; 20:13), 새 언약 하에서도 변함없이 가증한 행위로 경고한다(롬 1:26,27). 동성애는 인권이나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 둘째, 민중신학이다. 해방신학의 한국판인 민중신학은 그 역사가 이미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계는 하나의 진보적 신학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하지만 민중신학은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신학이 아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의 혁명가로, 부활을 민중이 주체가 되는 세상으로 폄훼한다. 서남동은《민중신학의 탐구》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철저히 농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 민중신학을 제대로 변증하고 비판한 신학자, 목회자, 이단연구가들이 과연 몇이나 되는가? 셋째, 교회에 침투한 중북굴중(從北屈中)의 전체사회주의 주사파사상이다. 마르크스-레닌의 후예들인 이들은 교회를 비롯한 한국사회 곳곳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위협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호교를 위한 이단 연구는 이제 이 세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 상기 글은 한국교회연합 총회 보고서에도 실릴 예정이다.

Your True ESG Partner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증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행복을 **水** 놓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제주 4.3 사건과 여수 14 연대 반란 사건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먼저 갖추어야 할 자질이 있습니다. 바른 역사관입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바른 역사관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다른 분야에 아무리 유능하고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나라의 기틀이 바로 서지 않게 됩니다.

대통령 이재명은 최근 한 글에서 여순 반란 사건에 대한 소견을 적었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해 4월 3일에 제주도에서 다가오는 국회 의원 선거를 보이콧하기 위하여 일어난 사건이 제주 4.3 사건입니다. 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4.3 사건에 대하여 정확하게 언급한 말이 있습니다. 한 외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김 대통령께서는 1948년 4월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4.3 폭동 사건에 대하여 어떤 입장입니까?〉

외신 기자의 이 질문에 대하여 김대중 대통령은 다음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4.3 사건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견해였다 생각합니다.

〈1948년 대한민국의 첫 국회의원 선거인 5월 10일 선거를 앞두고 공산당이 선거를 방해하기 위하여 일으킨 사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시민들이 많이 희생당하였습니다.〉

4.3 사건이 이외로 크게 일어나자 갓 태어난 이승만 정부는 이를 진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여수에 주둔 중인 14 연대에 명령하였습니다. 〈제주도로 출동하여 4.3 사건을 진압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출동하는 당일에 14 연대 안에 안락중이던 공산당 프락치들이 반란을 일으켜 식사 중인 장교들을 사살하고 2천여 명의 국군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순 반란 사건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수 14 연대 반란 사건이지 여수 순천 시민들이 일으킨 반란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이 이 사건을 그릇 이해하여 〈국군들이 선량한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어 일으킨 사건이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국가의 기틀을 흔드는 그릇된 인식입니다.

일터가 에덴이 되려면



11월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기도하며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 형제와 나눌 말씀의 주제는 “왜 일은 이렇게 힘든 걸까요?”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면 일을 해야 합니다. 자기의 삶을 책임져야 할 뿐 아니라 때론 부모와 배우자, 자식들의 삶도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높아처럼 즐거우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삶의 무게를 지탱해야 하는 부담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별히 이만자들의 1세 부모님은 많은 시간을 몸매 부담을 주는 일

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중에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세대들은 심한 육체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전히 일이 힘들다고 하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불안정한 시대에는 갑원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형제와 제가 일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특권이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일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존재한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필요한 곳이 있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갈 수 있습니다. 눈을 떴는데 내가 필요한 곳도 없고, 세수할 필요도 없을 때 마음에 드는 생각은 무기력합니다. 우리는 팬데믹 기간 이런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데가 없고,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을 이유가 없는 삶을 살아 보았습니다. 그 기간 몇 일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이 몇 달을 지속하니 몸도 마음도 망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르신 중에는 그 기간 많은 기능을 잃어버리고 전과 같은 삶으로 회복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먼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최초의 범죄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들의 최초의 일은 에덴에서 잘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먹을 과일들을 따고, 동물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풍족한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돌봐 주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땅은 저주받아 사람이 죽을 만치 힘들게 일을 해야 겨우 먹을 것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저주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 일을 했음에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불안정한 사회 때문에 하던 일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사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의미를 부여하여 주셨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듯한 의미 없는 일인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내가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의 퍼즐 한 조각을 담당하는 사명을 부여하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일이 힘든 것은 그 일이 의미가 없고, 보람도 없고, 해학자 티도 안 나고, 수고에 비해 얻는 것이 턱없이 적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이라 여기고, 그 일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 하는 자리이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리라 여길 때 우리의 일은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가 에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터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에덴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社 說

간첩 활개 치는데 잠자는 ‘간첩죄’ 개정안

최근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일부 중국인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보도되며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된 가운데 군사시설을 엿탐하다 적발되는 사례까지 빈번해져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에 대한 막연한 혐오나 적대 감정은 안 될 일이나 법 위반자, 특히 안보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얼마 전 국내 주요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인근에서 전투기 사진을 무단으로 찍다 적발된 된 중국인 10대 고교생 두 명이 결국 경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각각 3차례, 2차례에 걸쳐 한국에 입국해 수원·오산·평택·청주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 등 국제공항 3곳을 돌며 전투기와 관제 시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국인 10대는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군기지 주변을 오가며 촬영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촬영한 사진만 수천 장에 이르며, 항공기 이착륙 순간은 물론 군사시설 주변의 보안 구역까지 포함돼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 이착륙 장면을 촬영하다 주민 신고로 적발된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왔다. 그러다 휴대전화 포렌식과 동선을 분석한 결과 단순 촬영을 넘어선 정황이 드러나자 ‘일반이적죄’로 변경해 구속한 것이다.

이들은 “평소 항공기 촬영이 취미라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며 ‘이적’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취미라도 군사기지 인근에서 몰래 촬영을 하는 건 불법이다. 그들이 10대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남의 나라에 와 안보시설을 엿탐한 행위를 눈감아 줄 나라는 없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 중 한 명이 자신의 부친이 중국 공안이라고 밝혔다는 보도가 있었다. 경찰은 이 부분도 사실관계를 조사중에 있다. 만약 이들의 행위에 중국 공안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한중 양국 외교 관계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큰 문제다.

이들 10대 중국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일반이적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전파법’ 위반 이다. 이중 ‘일반이적죄’는 형법 제99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범죄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지난 5월에 주한 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서 대만 국적의 성인 남성 두 명이 전투기를 불법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대만 국적의 이 남성들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긴급 체포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평택 오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 현장에서 미군 장비시설을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사 당일 미군 측이 중국 및 대만 국적자에 대해 출입을 제한했음에도 한국인들과 섞여 행사장에 들어온 후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된 것이다. 미군이 출입을 세 차례나 제지했는데도 보안망을 뚫고 무단 침입한 만큼 이들에게도 ‘이적죄’가 적용될 수 있다.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들어와 군사시설 등 핵심 국가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 6월 이후 11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한 미 항공모함을 중국인이 드론으로 촬영한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11건의 사진 촬영이 군기지, 공항·항만, 국정원 등 핵심 군사시설 및 국가 중요시설에 집중됐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군사시설을 몰래 촬영한 중국인의 경우 관광객 또는 유학생 신분이었다고 중미성년자도 있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한결같이 취미이자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둘러댔으나 적발 당시 고성능 카메라와 무전기 등을 사용한 수법과 촬영한 내용이 군사시설 탐지로 불만한 증거들이 나온 점 등을 미뤄 볼 때 계획적인 안보 정탐 행위가 의심된다. 국내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중 특히 중국인이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된 사례는 갈수록 증가 추세다. 문제는 이런 위법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는 데 있다.

지난해 말부터 각종 안보 불안 이슈가 터지면서 국회에서 ‘간첩죄’ 개정안이 발의됐다. 간첩행위를 ‘적국이나 외국의 지령·사주·의사연락 등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자·수집·수탈·전달·공개하는 행위’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처벌 대상을 북한뿐 아니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한 게 골자다. 하지만 여론이 가라앉자 이 개정안도 국회에서 계류된 채 1년 가까이 잠자고 있다.

간첩행위와 관련해 미국·중국 등 다른 나라는 자국 외 타국 전체를 ‘법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외국은 국가 간 친소관계와 상관없이 자국의 핵심 기술, 안보 관련 기밀 유출에 관여하면 이를 ‘간첩 행위’로 규정해 강력히 처벌하는 데 우리나라는 북한만을 한정된 탓에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사실상 방조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다.

간첩죄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신설된 이후 7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 틈을 비집고 사실상의 간첩 행위자들이 활개 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한국은 ‘중국 간첩들의 놀이터’라는 비아냥까지 듣는 마당에 국회가 왜 법을 개정하지 않는 건지, 못하는 건지, 무슨 말 못 할 사정이 있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말끝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든가, 당장 법 개정에 착수하든가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청
---------	---------	---------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자재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구독문의 010-5169-8291
광고문의 010-5169-8291
대표구좌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의료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돈돈한국민의
돈돈한금융지킴이

거친 파도에도 언제나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어떠한 금융위기에서도 **예금보험공사**가 여러분의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심리적 상담 치유 (예언의 말씀)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박힌 고질병을
혼자 고심하지 말고 (한문으로)
“이름과 나이”만 알려 주시면
고독 나무에 꽃이 피어 인생길을
밝게 살 수 있도록 치유하게 됩니다.
성격, 사명, 출세, 성공, 실패, 건강,
병약, 단명, 장수, 가정, 자녀, 부모,
부부의 금실, 이혼, 위급한 사고,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밝히
치유를 받게 됩니다.
나는 몸이 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약할 때 곧 강하게 된다”고 했다.
고전4:10

송백 목사 010-3809-6487
충북 단양군 대강면 두음6길 4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1.복지시설 외 타용도로 사용가능!

1.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2. 매매가: 상담과 답사 후 결정
3. 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4. 주소: 충북 영동읍 479-8외 1건.
5. 토지: 2,756m² (833.69평)
6.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² (139.75평) + α(40평)
7. 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냇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기타]
※경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목회자 고령으로 은퇴준비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경기 예술 신학원 학생모집

문화 전쟁의 시대 마귀 문화와 하나님 문화의
대결의 시대에 기독교 문화를 대중화 하고 또한
예수 신앙으로 무장된 예술인을 배출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경기예술신학에 모집을 목적에 둔다.



학장 장대수 박사

학력 및 경력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 졸업
광신대학교 신학과 졸업
개신대학원대학교 석사(사회복지전공)
개신대학원대학교 (ph.D) 철학박사

철학박사

전 극동방송 드라마 성우 / 대한민국 연극제 최인훈작
한스와 그레델(주연) / 씨프르릭, 이강철 연출
출구없는 방 출연(주연) / 세익스피어 작, 오셀로 출연등

학 과	연극신학과
지 원 자 격	고졸이상학력
종 교	기독교세례자
모 집 인 원	약간명
원 서 지 원	25년 1월부터
개강및수업	수시모집
학 제	4년

토요일만 집중 수업 졸업 후 목회자가 되기를 하던 개혁신학교 신학연구원에 입학함

지구촌복음방송

대표 장대수 목사 | 문의 010-6325-3916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376-2 현대프라자 4층 시흥 사랑의교회 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60:1)



다문화복음방송
(Multicultural Gospel Broadcasting Company)



대표 김덕검 목사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에 접속
2. 메인 화면의 국가나 국기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터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사]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1995년 개척하여 2번의 건축을하고
30년 동안 부흥·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부흥회

부흥회 지원

- 20년동안 1000회 이상 부흥집회 인도
- 한샘교회 담임목사
-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사) 現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56대 대표회장
- 現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 Good TV 부흥선교협의회 대표회장

한샘교회

- 1995.9 개척
- 2000.4 1차 성전건축
- 2008.1 2차 성전건축

방향 및 성령의 역사

- 철저히 개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 개교회의 목회방침에 따라
-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짐
- 학생, 청년이 꿈을 꾸고, 길이 열리며 부흥·성장함
- 영·육·물질의 문제가 해결,
- 기둥이 세워지고 축복의 증거가 나타남
- 사탄의 역사가 끊어짐

신청 방법

이승현 목사:
010-8913-7777
·한샘교회: 032-512-3375

지원 대상

-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 낙도·오지교회
- 3 無 부흥회:
- 사례, 숙소, 식사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비산동
교회 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께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 소 경기·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인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세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 교육

- 외국어 성경 생생한 원어 발음
- 해외 기독교 서적도 쉽게 번역
- 스캔, 음성, 사진 3가지 방식으로 통 번역
- 영어, 국어, 한자 전자사전 기능으로 문해력 도움

신학생들과 해외 사역자들에게도 유용

- WiFi 없이 9개 언어 오지에서도 완벽 작동
- 선교지에서도 언어 장벽 해결
- 통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안정적 사용
- 60개 언어로 어디든 담대하게 복음 전파

독자 특별 혜택
정상가 398,000 → 할인가 259,000원
문의 010-9965-0961

빠른구매



AI보카펜만의
독보적인 5가지 차별점

1. 4가지 사전으로 영어, 국어+문해력
콜린스 영영사전, YBM영한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에센스한자사전
2. 인터넷없이도 9가지 언어 번역
3. 60개 언어 지원 - 진정한 글로벌 기기
4. SD카드 확장 - 무한 성장 가능
5. 36,000자 토폴, 토익 등 대용량 단어장



AI VOCAPEN
국내 최초 생성형 AI 언어 번역기 - 보카펜

그러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누구든지 그리
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새로 만들어졌다는 뜻
이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들
그렇다. 세상에서는 개량이나 개혁에 초점을
는 표현을 쓴다.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새
게됨났다”고 할 수도 있고, “버려졌던 공간이
를 작용함으로 거듭났다”고 할 수도 있다. 그
말하는 거듭남은 것은 그렇지 않다. 말 그대
어나는 것이다. 태어남이 전혀 태어난다는 비
다. 한 번 태어난 사람과 두 번 태어난 사람도
체가 불가능하다. 강하게 성약을 말하다

날 새를 함께 하소서

조나단 에드워즈와 부흥의 중요성 (2)

조나단 에드워즈와 부흥의 중요성을 다루면서 우리는 올해의 주제인 “미국에서의 청교도주의 실험”을 계속 다루어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택한 목적은 영국 국교회의 명에서 벗어난 지 이백 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는 우리의 미국 친구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그들의 독립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수적인 이유와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질 세기 새 대륙에 일어났던 일로부터 무엇인가 배우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의 연구 모임에서 생각해 왔던 것은 다시 한번 청교도의 정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청교도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청교도주의 실험은 청교도주의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보여주었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청교도주의가 본질적으로 묵회 신학에 대한 하나의 관심이라고 믿고 하려고도 했

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청교도주의의 정수는 이미 교리 문제에서 일어났던 개혁을 기독교 교회의 본질과 생활과 정책 속에 반영시켜 실행하려는 바람입니다. 금년도 웨스터민스터 청교도 연구회의 주제가 그 점을 다음과 같이 입증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주로 핍박 때문에 대서양을 건너서 이 새로운 나라에 살려고 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영국 국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진정 믿는 바대로 행할 자유를 얻게 되자 즉시 국교도이기를 단념했습니다. 그들은 감독 제도를 버리고 회중교회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 점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교훈입니다. 이 일은 후에 영국에 있는 거의 모든 청교도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고 믿는 바를 행할 수 있는 기회와 자유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영국에서도 찰스 일세를 대항하여 겪고 난 후 삼

십 년 만에 공화정 시절 그리고 천육백육십이 년 대주방 때에 비로소 실시된 것을 즉각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은 청교도주의의 참된 성격과 본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특별히 다루려고 합니다. 저는 그에 대한 몇 가지 주요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는 천칠백삼 년에 태어나서 천칠백오십팔 년에 죽었습니다. 이상스럽게도 그는 천연두 예방 접종을 맞은 결과로 죽었습니다.

그는 매우 탐구적이고 활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신학뿐만 아니라 과학 문제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미국에서 제공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일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천칠백이십칠 년 그는 매사추세츠 주 노스햄턴에서 외조부 솔로몬 스토타드의 부목회자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일 년쯤 후 외조부가 돌아가시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혼자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천칠백오십 년 교회에서 쫓겨날 때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기이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교역자들과 설교자들에게 한 마디 격려의 말로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 뛰어난 천재이며 능력 있는 설교자로서 대부흥의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천칠백오십 년 투표 결과 이백삼십 대 이십삼으로 교회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교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렇게 노스햄턴 교회에서 추방당한 그는 당시 변경 지역으로 인디언들이 사는 곳인 스톡브리지로 갔습니다. 그가 그리로 보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가 그곳에 있는 동안 가장 위대한 걸작들에 속하는 몇 권의 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존 번연이 십이 년 동안 베드퍼드의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명작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이, 조나단 에드워즈도 이처럼 고독하게 됨으로써 명저를 남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곳에 있다가 그는 뉴저지 대학의 학장으로 초빙되었는데 지금의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거기서 얼마 후에 그는 제가 설명 드린 것같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생애에서 뛰어난 사실은 그의 노스햄턴 사역시 일어난 놀라운 부흥이었습니다. 그것은 천칠백삼십사



년 말부터 천칠백삼십오 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 천칠백삼십 년 조지 워싱턴 일행의 방문과 대각성에 참여한 일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생애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 연구회에서 언급된 사람들과 이 사람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는 심할 세기 사람이지만 심할 세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왔던 사람들은 거의 다 영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함께 청교도주의의 새로운 요소와 새로운 요인이 나타났다고 말해도 잘못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위대한 청교도들은 거의 대부분이 학자적 기풍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소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쓴 저작들의 문제와 제목과 소제목에서 독특한 특징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에드워즈는 비교적 그런 것에서 자유롭습니다. 그 결과 그의 방법은 보다 직설적이고 보다 생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가 생각해 온 전통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계약 신학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불충분한 언약 개념을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천칠백오십 년 그가 교회에서 축출당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특정인의 자녀에게 세례를 주지 않으려 했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행동 및 행위 기준을 주장했습니다. 덧붙여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학습 준비 교육을 전혀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점에서 그는 토마스 후커보다는 존 코튼에게 속합니다. 그는 그의 관점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기독교 세계의 모든 것을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 자격과 권한을 얻는 것은 어떤 위대한 신적 감화를 단번에 엄청난 변화를 받음으로써이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을 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점진적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들의 상태가 지극히 다양하다는 것이 그것을 주장합니다.”[전집(works), 이 권, 오백오십칠 면]. 제가 증명하겠습니다만 그는 성령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력과 감작스럽고 극적인 회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같이 윌리엄 에임즈의 저작들을 읽기 좋아했고 그 저작들에 크게 도움을 입어 다른 사람들처럼 칼빈주의자였고 화중 교회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기독교 신앙과 생활의 도덕적 윤리적 요소들을 크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주장하고 싶은 바는 에드워즈를 통해서 청교도주의가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서 발견되

는 것이 있고 더 나아가서 청교도의 정신과 삶과 부가적인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게 것처럼 뛰어난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청교도주의가 그의 삶과 사역에서 만발했다고 말씀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는 교회가 아주 생명 없는 상태로 오랫동안 계속된 후 나타난 사람입니다. 이 점을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와 매우 유사한 시기에 살고 있으므로 이 점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이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것은 당시의 목회자였던 쿠퍼 목사가 에드워즈의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이란 책의 서문에서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개혁교회들이 그동안 얼마나 죽어 있었고 얼마나 메마른 상태에 있었습니까? 황금의 소나기가 멈쳤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복음은 탁월한 성공을 전혀 거두지 못했습니다.

회심도 드물었고 정말 그러한 일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그전처럼 깨어 있거나 뜨겁거나 규례들을 통해서 새로워지지도 않았습니

다.〈계속〉

청교도 도서관 제공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Psalm 16:8 NIV

I keep my eyes always on the Lord. With him at my right hand, I shall not be shaken.

- keep my eyes on : ~을 (주의 깊게 계속해서) 바라보다
- with :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 at my right hand : 나의 오른편에

- shall : 예측(prediction)의 조동사, 1인칭에만 쓰임
- shake : (신념 또는 생각을) 흔들리게 하다

시편 16편 8절
나는 항상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이 나의 오른편에 계시므로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카카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John 3:12 NIV

I have spoken to you of earthly things and you do not believe; how then will you believe if I speak of heavenly things?

- have spoken(현재완료) :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 speak of : ~에 대해 이야기하다
- earthly things : 세상의 일들(세속적인 일들)
- then : (논리적인 결과를 나타내어) 그렇다면

- heavenly things : 하늘의 일들

요한복음 3장 12절
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상의 일들에 대해 얘기했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하늘의 일들에 대해 말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카카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해방전쟁을, 함께하는 KRC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C 한국농어촌공사





백판기 목사의 영어로 읽는 로마서((173)

로마서 14장 7절

7. For none of us lives to himself alone and none of us dies to himself alone.

·For none of us lives to himself alone :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and none of us dies to himself alone. :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중요한 단어, 숙어

none(=not+명사) 아무도~않다아무것도~않다. alone 혼자서,홀로.

이 말씀은 진리이요, 체득하기는 가장 어려운 진리이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다는 표현은 남이아 뭐라 하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죽는다는 뜻이다. 마치 이 세상에 자기 혼자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남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 말이다.

그러나 이 구절은 “우리 중에는” 즉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다고 말씀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인 동시에 남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는 가운데 남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문제는 이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느냐 하는 것이다. 이 시대에 남이아 뭐라든 자신을 위해 살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부류가 운동 선수들이다. 대중의 시선을 끄는 스타들은 자신들의 생활에 대해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영화배우들은 자신들의 생활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에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비단 영화배우나 운동 선수들 같은 스타들만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도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주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데 누가 상관하겠느냐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이다. 하다못해 자식들이 보고 있고 손자들이 보고 있으며 부모들이 보고 있고 동생들이 보고 있으며 친척들이 보고 있고 이웃 사람들이 보고 있으며, 아무튼 누군가가 당신을 보고 있음을 알

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6:19-20

19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20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9 Do you not know that your body is a temple of the Holy Spirit, who is in you, whom you have received from God? You are not your own: 20 you were bought at a price. Therefore honor God with your body.

고린도후서 5:14-15

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라 15 자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14 For Christ's love compels us, because we are convinced that one died for all, and therefore all died. 15 And he died for all, that those who live should no longer live for themselves but for him who died for them and was raised again.

갈라디아서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0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해석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로마서 14장 8절

8. If we live, we live to the Lord;



and if we die, we die to the Lord. So, whether we live or die, we belong to the Lord.

·If we live : 우리가 살아도
·we live to the Lord: 주를 위하여 살고
·and if we die : 죽어도
·we die to the Lord. : 주를 위하여 죽나니
·So : 그러므로
·whether we live or die : 사나 죽으나
·we belong to the Lord. :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중요한 단어, 숙어

whether A or B : A든지 B든지. whether ~인지 어떤지, ~이든지(아니든지), belong to ~에 속하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산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우리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주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바 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면 다른 사람들이야 우리를 주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럴지언정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시하신다. 그런즉,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설사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주를 위하여” 하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고 무슨 일이나 “주를 위하여” 하는 일이라면 그것으로 족하다.

빌립보서 1:18-21

18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라라 19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고로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2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18 But what does it matter? The important thing is that in every way, whether from false motives or true, Christ is preached. And because of this I rejoice. Yes, and I will continue to rejoice, 19 for I know that through your prayers and the help given by the Spirit of Jesus Christ, what has happened to me will turn out for my deliverance. 20 I eagerly expect and hope that I will in no way be ashamed, but will have sufficient courage so that now as always Christ will be exalted in my body, whether by life or by death. 21.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요한계시록 14:9-13

9 또 다른 천사 곧 세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라라 하더라 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 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9 A third angel followed them and said in a loud voice: "If anyone worships the beast and his image and receives his mark on the forehead or on the hand, 10 he, too, will drink of the wine of God's fury, which has been poured full strength into the cup of his wrath. He will be tormented with burning sulfur in the presence of the holy angels and of the Lamb. 11 And the smoke of their torment rises for ever and ever. There is no rest day or night for those who worship the beast and his image, or for anyone who receives the mark of his name." 12 This calls for patient endurance on the part of the saints who obey God's commandments and remain faithful to Jesus. 13 Then I heard a voice from heaven say, "Write: Blessed are the dead who die in the Lord from now on." "Yes," says the Spirit, "they will rest from their labor, for their deeds will follow th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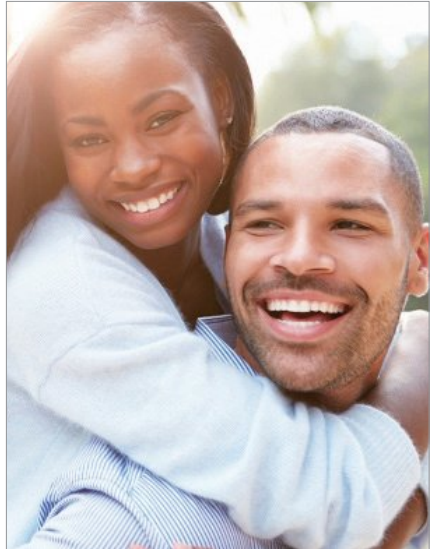
▶해석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백판기 목사(예수날사랑하심교회)

동성애 독상

감정계좌



모든 사람은 감정탱크, 사랑은행, 감정계좌등 다양하게 불리는 것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스테판 코비의 용어인 감정계좌를 좋아 한다. 예금계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감정계좌에 입금을 하고 출금을 한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 시간 을 함께하는 것,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 서로를 돕는 것, 주님과 가까이 걷는 것, 서로의 영적 파트너가 되는 것, 재미있고 충실한 파트너가 되는 것 -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입금과 출금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부분들이다.

부부가 함께 하지 않거나 사랑을 느끼지 못하거나 별거나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쪽 또는 양쪽의 감정계좌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거나 완전히 비어 버렸기 때문이다. 부부는 감정계좌로 배우자를 파산시킬 때 이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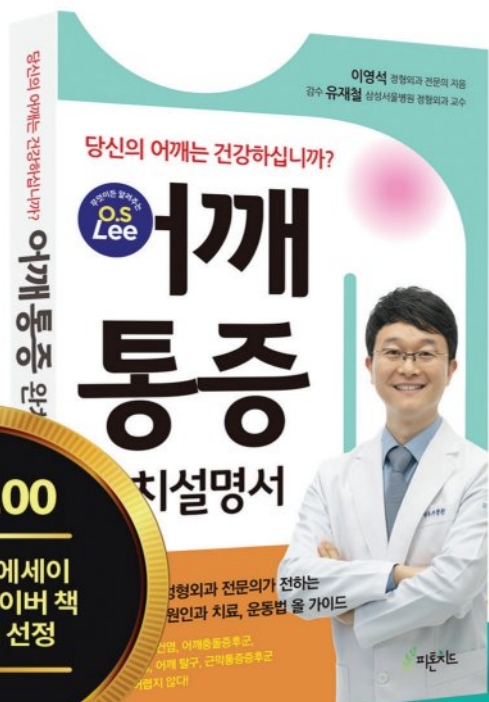
대금을 항상 늦게 결제해 주는 사업가가 어리석은 것과 같이 필요할 때에 아내의 감정계좌에 입금을 하지 않는 남편도 어리석기는 마찬가지이다. 우리들 모두는 출금을 하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출금보다 더 빨리 입금을 하느냐는 것이다.

당신이나 당신 아내가 하는 모든일은 입금 아니면 출금이다. 우리 아내의 계좌에 사랑과 신뢰의 저수지를 만들자. 오늘, 바로 지금 당신의 감정계좌에 있어 입출금의 균형상태는 어떤가? 당신은 아내의 감정계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패트릭 M.모레이 「아버지의 일곱가지 계절」 중에서 / 출처: 햇별같은이야기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을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은혜의샘물 역사는 정신에 지배된다 (1)

[누가복음 12장 16-21절]

그리스 신화에 미다스(Midas)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다스는 브루기아의 왕으로서 황금을 어찌나 좋아했던지 손으로 만지는 것은 모두 황금이 되게 해 달라고 술의 신 디오니소스에게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소원이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미다스는 혼쭐났습니다.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는 것은 좋는데,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자 딸까지도 황금으로 변했고, 사과를 먹으려 손을 대자 사과마저도 황금으로 변하는 바람에 쫓쫓 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최대의 가치를 두고 탐하는 물질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을 함정에 빠지게 한다는 교훈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삼이 장 삼육 절에서 이십 절에 여러석은 부자에 관한 예수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기름진 농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풍년이 들었습니다. 거두어들인 곡식은 곡간을 가득 채우고도 남아 더 넣어 둘 데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속으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겠군. 그러면 충분히 쌓아둘 수 있겠지.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리라. 나는 물건을 몇 해 동안 쓰고도 남을 만큼 쌓아 두었다. 이제 편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찾아가리라. 그리고 나면 네가 모은 재산이 다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재물에

다 최대의 가치를 두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안주하려는 사람은 결코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실패자가 되고 만다는 교훈입니다.

기원전 삼백삼십육 년에 그리스 본토 도시국가의 왕들은 페르시아 원정을 앞두고 고린도에 모여 군사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스무 살에 불과한 젊은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가 원정군 총사령관으로 뽑혔습니다. 그러자 내로라하는 정치가, 장군, 철학자들이 고린도에 몰려와 축하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총사령관이 기다리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당시 시노페 출신의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고린도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디오게네스가 축하 인사하러 와줄 것을 은근히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디오게네스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몸소 이 철학자를 찾아갔습니다. 디오게네스는 나무통 속에서 초라하게 살았는데, 일광욕을 즐기던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더를 보자 일어나 앉았습니다. 알렉산더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넌 후에 물었습니다. “뭐 도와드릴 일이 없겠습니까?” 디오게네스가 대답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사령관께서 햇살을 가리고 계시니, 조금만 비켜서 주십시오.”

알렉산더는 그리스 원정군 총사령관을 본체도 하지 않는 철학자의 배포에 질려 다음 질문을 내놓지도 못하고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동행했던 장군들이 디오게네스의 통명스러운을 비웃었지만, 알렉산더는 오히려 “내가 만일 오늘의 알



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디오게네스는 거칠게 먹고 험하게 입고 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형편이 어려워 고기를 사 먹을 수 없었던 그는 값싼 야채를 구해 깨끗이 씻어 먹고는 했습니다. 그가 시냇가에서 푸성귀를 씻고 있는 것을 본 한 유복한 친구가 지나가다가 안타깝다는 듯이 충고를 했습니다. “고개 수그리는 법을 조금만 알아도 호의호식할 수 있을 텐데, 자네 왜 그 모양인가?” 유복한 친구를 돌아다보면서 디오게네스가 말했습니다. “거칠게 먹고 험하게 입고 사는 법을 조금만 알아도 고

개를 수그리지 않아도 될 텐데 자네는 왜 그 모양인가?”

무기력한 거지나 다름없지만 디오게네스는 사기 충천한 그리스 원정군 총사령관 알렉산더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디오게네스의 정신이 알렉산더의 무력을 지배한 것입니다. 디오게네스의 청빈함과 초탈함이 물질과 명예와 권세에 끌려다니는 아류들을 지배한 것입니다.

페르시아 원정을 앞두고 알렉산더는 델포이(Delphi)로 올라갔습니다. 델포이는 예언의 신 아폴론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신전의 문 상안방에는 “그노티 세아우톤” 즉 “너 자신을 알라”(Know

thyself)는 유명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아폴론 신이 그 신전에 맡겨 놓았다는 뜻을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전에 이른 날은 공교롭게도 액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부하를 신전에 들여보내 여사제(제니 혹은 푸티아)에게 총사령관이 탁선 곧 신이 맡겨 놓은 뜻을 받으러 왔다는 사실을 알리게 했습니다. 잠시 후 부하가 나와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여사제는 신전의 법에 따라 액일에는 신이 맡겨 놓은 뜻을 전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알렉산더는 부하를 다시 들여보내 우격다짐으로 여사제를 끌어내게 했습니다. 끌려 나온 여사제는 사령관 앞에서도 탁선을 전할 수 없다고 버티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여사제를 끌고 신전으로 들어가 다리가 세 개인 결상에 앉혔습니다. 델포이 신전 중앙에는 연기가 솟아오르는 조그만 구멍이 있었는데, 여사제가 연기 구멍 위에 이 세 다리 의자(Tripous)를 올려놓고 그 위에 앉아서 연기를 들이마신 후에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사제는 알렉산더의 열성에 감복했다는 듯이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참으로 질 줄 모르는 사람이군요.” 탁선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낸 셈이 된 알렉산더가 응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받고 싶어 하던 신의 뜻이오.”

세계 정복의 꿈을 가졌던 알렉산더의 정신력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역사는 꿈꾸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지배됩니다. 역사는 물질이 아닌 정신에 의해서 지배됩니다.

알렉산더의 원정군은 역사가에 따라 주장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삼만 오천 명의 보병과 삼천오백 명 정도의 기병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변변치 못한 군자금으로 원정에 나서면서도 왕실 재산을 군자금에 보탬 생각은 하지 않고 참모의 가족들에게 고루 나누어주고는 손을 털었습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귀족 출신의 참모 페르디카스(Perdiccas)가 알렉산더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전하께서는 빈털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알렉산더가 대답했습니다. “천만에, 아직도 내게는 희망이 있소.” “그렇다면 저도 재산 대신에 그 희망이라는 것을 좀 나누어 받겠습니다.” 페르디카스는 왕이 하사한 재산을 반납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페르디카스가 반납한 돈을 더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마저 나누어주고는 다시 손을 털었습니다.

후일 페르디카스는 알렉산더가 죽은 후 대 헬라 제국의 섭정이 되었습니다. 그가 나누어 받은 희망의 열매가 어찌 여러석은 사람들이 받은 한 상자의 돈과 같다고 할 수 있었습니까? 알렉산더와 페르디카스는 눈에 보이는 작은 재물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꿈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면서 보다 큰 성공에다 가치를 두었던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 그의 이름을 역사에 깊이 새겨 수천 년이 흘러도 지울 수 없게 만든 것, 그것은 바로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큰 꿈과 기상을 품고 미래를 내다 본 정신에 있었습니다.

(계속)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제공

교회오빠

착각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인생이 천년, 만년이 될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하여도 자신은 영생불멸의 삶을 살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다.

이 시편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을 “수고와 슬픔 뿐이다”라고 합니다.

짧은 인생,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을 멋있고 기쁘게 산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슬픔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

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인간들은 죄값으로 근심과 걱정을 선물로 받았습니

다. 어떤 이는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고, 또 어떤 이는 있는 자식으로 고통과 근심에 쌓이며, 어떤 이는 질병으로 인하여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창세기 사십칠 장에 보면 야곱이 바로 왕에게 섰을 때 바로는 야곱에게 나이를 물으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일백삼십 년이요.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

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나이다” 하였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보면 백삼십 년의 생은 긴 세월이지만 야곱은 긴 생도 순식간에 지나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이 백 살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백오십 년의 여생이면 지루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산다 하여도 어느새 주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창골산 불목사 제공

이야기하늘나라

코리텐 봄 여사의 기적

코리 텐 봄 여사는 나치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석방된 이후 세계를 순회하며 전도하는 여생을 살았습니다. 아직 러시아가 소련 공산 체제 아래 있을 때에 그녀는 성경을 가방에 가득 담아 가지고 소련에 가서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이 계획이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이 주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방 가득 채워서 소련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어느덧 비행기는 소련에 도착하였고, 모든 탑승객들은 세관에서 짐 검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코리 여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손에 땀이 나게 하는 순간이었습니

다. 그녀는 과연 하나님께서 세관원의

런데 갑자기 세관원 한 사람이 코리 여사를 보더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할머니 집이에요? 할머니께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시는군요. 제가 좀 들어 드리지요.”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이 든 가방을 펼쳐보지도 않고 번쩍 들어서 택시 타는 곳까지 친절하게 옮겨 주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예수님 닷컴 제공



의와 개인주의



이선종 지휘자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 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사7:8-10)

지금 세상은 팬데믹으로 하나님주의는 개인주의와 다투고 있다. 개인주의의 방향에서는 오직 한가지만 선명해진다. 의로움을 향한 온전성을 추구하는 영역에서만 의롭다.

각 나라와 민족이 추구하는 방향은 대체로 악하다. 이는 개인이 높은 자리를 통치하는 자리인 방백의 무리(상류층)에 오르면 악함의 매커니즘을 피할 수 없고 또한 각 개인은 커다란 민족과 국가의 요

구에 자신의 악함을 요구당한다. 때문에 대체로 개인과 방백과 국가는 그 뿌리에 자기 이익과 욕망과 악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의인이 통치하는 나라와 개인은 그렇지않다. 때문에 시편송 연가수는 민족과 나라와 방백의 위치에서 판단을 내려버두고 곧 바로 개인 자신으로 먼저 돌아온다. 세상 것들의 총체가 하는 짓과 개인인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이 하등 다를 것이 없다는 것과 또한 오직 개인의 회심만이 개인과 사회를 다르게 할 수 있음을 안 것이다.

아웨의 거룩하신 의를 쫓는 자신의 온전성을 만세상에 공개하여 나라와 개인을 회심의 나락으로 떨어 까발려 놓는다. 나라는 한 개인의 온전성에 의해 통치되고 되야 한다고 말한다.

온전성(통)과 정직(야사)

여기서 온전성(통)이란 결핍있는 자가 완전함을 향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의로

움(째데크)을 양보하지 않는 것(통)을 말한다. 이 의로움에 대한 질주를 사람들이 보고 그의 모습을 정직하고 신실하고 일관성이 있는 자라 말하기도 하고 인테그리티가 있다고도 한다.

한마디로 의를 향하여 자신의 결핍을 고통스러이 뚜벅뚜벅 멈춤없이 행진하며 자신의 악을 원통하게 여기고 괴로워하는 삶을 뜻한다.

괴롭고 가난의 삶은 양심에 의해서 일어난다. 의는 가질 수 없으나 의를 포기하지 않으니 같은 행실이 바르지만 속은 여전히 부자연스럽다.

양심의 수고를 게을리 하지 않고 정직에 있으니 마음을 일으키는 순결한 영인 갈망과 소원은 고양된다. 여기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고양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를 온전하다 여기신다.

심장(Heart)와 공팔(mind)

몸이 경험하는 심장과 공팔으로 하나님의 의는 나타난다. 심장은 본심이 갈망

하는 진원지를 뜻한다. 사람의 생명 앞에서 뜻하는 자기 의사다. 속생각이다. 공팔은 감정과 감동과 마음의 풀림이 일어나는 자리로 여겼다. 자기 의사의 샘을 뜻한다. 하나님은 여기 두 곳을 조사하신다. 몸과 생각과 마음이 한 통속이니 두 곳을 보라 하신다. 속생각과 욕망의 자리에 의로운 것이 있는가 보라 하신다. 그리고 그의 온전함을 평가하신다.

속생각과 마음 동요

개인주의는 심장과 공팔을 조사하여 속생각과 마음의 동요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를 살피기 보다는 이미 자신의 의견과 체화된 욕망이 세상이 알아줄만한 상품이 되어 화폐가치중심으로 무기화되는 힘을 과시한다.

개인주의적 자아와 하나님의 시선에 사는 자아는 그 자신과 그 자신을 이루는 세계와 나라가 각기 달라 이로써 모든 만물이 그의 시선에 따라 달라진다.

그 중심축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느냐

아니면 자아의 무게를 중시하는 시선에 있느냐 나누어 지는 갈림길이다.

개인주의는 의의 방향과 정반대에 있다. 단지 권력이 공정하게 개인에게 돌아와야 한다는 관계적이고 수평적 의의 있으나 개인의 의로움을 이루는 수직적 의는 세속주의에서 한치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개인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구조다. 하늘은 없고 땅만 있다. 수평적 공정만 가지고는 수직적 의로움에서 발하는 속생각과 마음 동요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태생적으로 개인이라는 자산

가치를 내세우는 근원에 욕망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세상과 공의롭지 않은 세상의 권력과 동류요 한통속이요 땅의 생각이다.

개인주의(땅)는 하나님주의(하늘)와 대항한다. 하지만 하나님주의는 한 개인의 영화로움과 그 독립된 영혼을 그 어떤 존재보다 가장 귀하게 여긴다.

여러분의 기독교는 지금 개인주의(수평적 의)와 다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수직적 의) 다투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수평과 수직에서 모두 악을 뿌리치고 의를 세우고 선을 이룬다.

◆이선종 지휘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BA)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 Master Christian Music(MCM)

Korea Presbyterian College of America(MDiv)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America(Thm) 수료

Cantor, Music Pastor

카리타스합창단 음악감독/VKCC 지휘자/성서 번역가

찬미와 감사의 사람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사103:1,2)



김영국 목사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한 중요한 정점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즐거워하는 것과 그가 주시는 은택을 헤아려 알고 만족해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겪는 신앙생활이 마침내 하늘의 보상을 실감하기까지는 고통스럽게 견뎌야 한다는 엄격한 규칙과 규제로 이루어진 기쁨이 없는 여정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는 아무런 기쁨이나 찬송이 없음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찬양과 감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축복에 대한 개인적 감사의 답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푸신 매일의 은택에 대하여 구속함을 받은 창조된 존재로서의 진심 어린 감사의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만 하는 것은 우리의 이기적

인 의욕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의 수많은 은택을 기억하는 내용도 포함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시편 103편에 기록된 그러한 “은택들”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온 일을 행하시며 억압 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구약시대의 레위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 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평신도 제사장들(believer-priests)은 자신을 영적 제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12:1)

하나님께서 모든 평신도 제사장들로부터 받기 원하시는 또 다른 중요한 영적 제물은 찬양과 감사와 선행과 나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

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13:15-16)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물 가운데 하나임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재능의 헌물(gift-offering)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임재의 가장 진솔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 모두 만복의 근원이신 그분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찬미와 감사가 우리 모두가 열매이기 쉬운 우울함과 자기연민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일상의 해독제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의 예배의 시간들이 우리 모두의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김영국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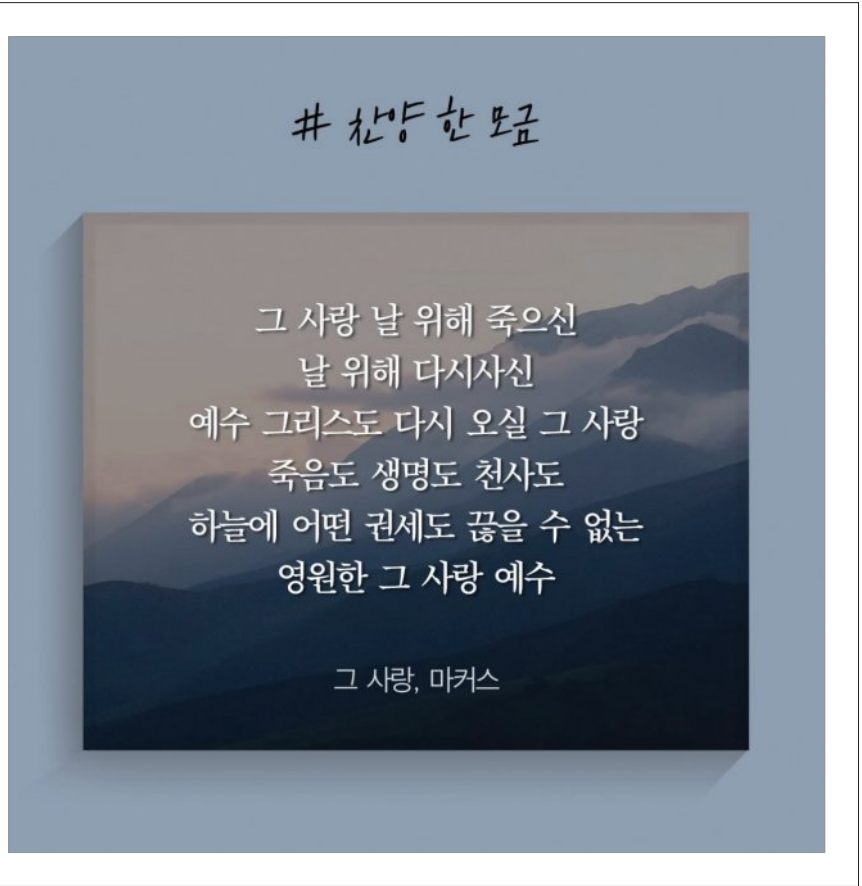
대광고와 한양대학을 졸업하고 1974년 미국으로 이주,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신학과 음악목회를 공부하였고, 척 스윈돌 목사와 그의 음악 목사이며 스승인 하워드 스티븐슨의 영향을 받았으며, 27년 동안 남가주 오렌지카운티의 큰빛한인교회에서 사역하였다.지금은 저서와 번역, 그리고 웹사이트 매거진 “예배음악”(Worship Music)에서 음악목회에 관한 칼럼을 쓰면서 자신의 음악목회 경험과 사역을 나누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장로교출판사가 펴낸 “성공적인 예배를 위한 음악목회 프로그램”, “성공적인 예배를 위한 찬양과 경배”가 있다.

찬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 Thomas Ken

“찬송은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고, 우리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곧 만복의 원천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출처: Kenneth W Osbeck의 Devotional Warm-Ups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대한제지

“다 함께 부르는 메시아”… 헨델 탄생 340주년 기념 무대

오는 12월 9일, 서울모테트합창단 제130회 정기연주회



서울모테트합창단(상임 지휘자 박치웅)이 오는 12월 9일(화) 오후 7시 30분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제130회 정기연주회 ‘다 함께 부르는 메시아(Sing along Messiah)’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헨델 탄생 340주년을 기념해, 관객이 직접 참여해 함께 노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작품으로 3부(총 53곡)에 이르는 대작이다. 1부 ‘예언과 탄생’, 2부 ‘수난과 속죄’, 3부 ‘부활과 영생’으로 구성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한 구원의 모든 이야기를 그려냈다. 이 곡의 대부분은 성경에서 차용한 가사로 찰스 제넌스의 오라토리오 대부분을 기반으로 쓰였다. 초연 당시 ‘할렐루야’의 함창이 울려 퍼지자 국왕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왕의 행동을 따라 모든 관객들도 함께 일어난 유명한 일화가 있으며 이러한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헨델은 시대를 넘어 후대 작곡가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준 작곡가로 알려져 있다. 모차르트는 빈에서 연주를 하기 위해 메시아를 편곡하며 새로



올해로 창단 37년을 맞는 서울모테트합창단은 제130회 정기연주회 「다 함께 부르는 메시아 Sing along Messiah」를 공연한다(사진은 지난 공연 모습). ©서울모테트합창단

운 생명을 불어넣었고, 베토벤은 헨델의 오라토리오적 합창 구성에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헨델을 ‘가장 위대한 작곡가이며 여전히 그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고 말하며 그의 작품 ‘메시아’를 극찬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멘델스존은 바흐와 헨델을 깊이 연구해 그의 오라토리오 작품인 ‘샤도 바울(1836)’과 ‘엘리아(1846)’에 바흐의 수난곡적 전통과 헨델의 오라토리오적 전통을 모두 흡수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올해는 1685년 같은 해에 태어난 바로크의 두 거장 헨델과 바흐의 탄생 340주년 되는 해이다. 서울모테트합창단은 지난 2005년 관객 참여형

음악회인 ‘Sing along Messiah’를 공연무대에 국내 최초로 도입하고 전곡 메시아를 포함해 약 20여 회의 메시아 공연을 해왔다. 올해 헨델 탄생 340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관객과 ‘다 함께 부르는 메시아’를 연주함으로 이를 기념한다.

이번 공연에는 소프라노 윤정난, 알토 김미순, 테너 유종훈, 베이스 이인규, 서울모테트 챔버오케스트라 등이 함께 연주한다.

올해는 서울모테트합창단이 관객과 함께 따라 부르는 ‘싱어롱’ 무대 20주년으로 싱어롱 관객참여석(A석)에 대한 20% 할인 제도가 마련됐다.

백선영 기자

인천시, 아펜젤러·언더우드 선교 경로 복원 추진

“한국 복음화의 출발지 인천, 선교 유산 재조명”

인천시가 1885년 부활절 아침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 입국한 개신교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Henry Appenzeller)와 호레이스 언더우드(Horace Underwood)의 선교 경로를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지난 3일 시청 본관 2층 영상회의실에서 ‘선교의 길(성지순례길) 인천 기독교 선교사 입국로 역사 고증 및 복원 추진 제안서’ 전달식을 열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인천이 한국 기독교 복음화의 출발지로서 지닌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선교 유산의 체계적 보존·복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아펜젤러·언더우드역사문화기념사업회,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인천기독교역사문화연구원,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탑보존회 등 지역 기독교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대표단은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복음의 길’ 제안서를 전달하고,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선교 유산 복원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안서에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제물포항을 통해 입국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의 발자취를 따라 인천-제물포-부평-부천-서교-서울 정동-새문안교회로 이어지는 ‘복음의 순례



1880년대 제물포항 ©인천문화재단

길’을 복원하는 계획이 담겼다.

세부 계획으로는 내년 4월 5일 인천 구간 복원 착공 △선교사 이동 경로에 대한 학술적 고증 △제물포항 및 내리교회 일대 유적 복원 △AR·VR 기반 디지털 해설 콘텐츠 제작 △역사문화 체험형 시민 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됐다.

인천시는 해당 제안의 역사·작문·화적 타당성과 시민 공감대 형성 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추진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은 한국 근대의 출발점이자 세계와 문명이 처음 만난 도시”라며 “이번 제안은 특정 종교의 영역을 넘어 인천의 역사적 정체성과 문화적 뿌리를 되살리는 의미 있는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계 지도자들과 함께 방향을 모색하며 시 차원에서도 행정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노형구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TV새벽예배 40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을 사신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25 가정과 자녀 축복 및 추수감사 특별새벽기도회 생방송	00 생명의 삶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30 은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TV강단 연동(김주용) 30 TV강단 한마음(김승룡)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정은주 목사(예원교회) 30 생명의 말씀-백동현 목사(대전한빛교회)	20 할렐루스트리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10 [말씀] 김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 50 [말씀] 화중부 목사(남서울교회)	00 생명의 양식 신나는(이정기) 30 새예덴의 언약 (소강석)(911회)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노변침묵(955회) 50 리바이즈 워십
	7:00	00 CTS 뉴스 20 생명의 말씀-임석순 목사(한국중앙교회) 50 생명의 말씀-신용수 목사(용인비전교회)	10 신의 2수 20 행복한 쉼터 LA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 50 행복한 쉼터 왕성교회 김노아 목사	30 휴먼네트	20 김동호 목사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483회)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663회)	00 포도원교회 주일예배실황 김문훈 목사
	8:00	20 백설기	20 솔직한 새끼들의 토크쇼 저 새끼양 40 다큐 더 로드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이종훈 목사(구덕교회)	00 하나님의 음성(76회) 20 CBS 성서학당 (신우인)(3370회) 출애굽기 33장	00 비전메시지 하늘비전교회 오영택 목사 30 비전메시지 두란노교회 이상문 목사
	9:00	20 더 메시지 시즌4	00 사랑의 메시지 여의도침례교회 국명호 목사 30 2025 다니엘 기도회	00 CGN 비전특강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2	10 새롭게하소서(11031회) 최서형 장로	00 믿음의 리액션(4회) 강원덕 영월 40 성경 속 전쟁사-에피소드
	10:00	10 지금, 선교해YOU	30 우리들의 지식살롱	20 [특집 다큐멘터리] 땅 끝의 증인들	00 CBS NEWS 10 20 더 콜링(136회) 50 살롱 살롱(9회)	00 강연쇼 톨(35회) 한국교회를 기록하다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오후	11:00	00 한국교회를論하다 50 김지연의 중독전쟁	00 행복한 쉼터 목길교회 임재호 목사 30 행복한 쉼터 제주동홍교회 박찬건 목사	10 [말씀] 이재훈 목사(은누리교회) 50 예수동행일기	00 울포원(683회)	00 소문나 성경교실(578회) 오택현 교수 세 번째 16강 박물관에서 말씀을 발굴하다 : 메르네타 석비 30 선교는 지금(54회) 양평 예수목자교회
	12:00	00 CTS 뉴스 20 신앙예세이 30 생명의 말씀-한별 목사(대치순복음교회)	00 GOODTV 뉴스 30 오병이어교회 금요성령충만집회	10 바이블 필름 <누가복음> 20 [말씀] 백금산 목사(예수가족교회)	00 TV강단 구세군대한분령 30 TV강단 만리한성결(조춘철)	20 말씀의 창 수원제일교회 김근영 목사 50 말씀의 창 영안장로교회 양병희 목사
	13:00	00 생명의 말씀-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 30 네 영혼의 찬양	00 예배실황 꿈의교회 김학중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	00 잘 믿고 잘 사는 법(309회) 20 통박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25회)	20 성지가 좋다(503회) 모세오경의 땅, 이집트를 가다 4부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14:00	00 [생방송] 콜링캣 50 내가 매일 기쁘게	00 2025 다니엘 기도회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이종조 목사(갈보리교회)	00 말씀의 힘 신일(배요한) 30 새롭게하소서(11359회) 이성근 선교사 1부	00 THE 공금(36회) 천사 4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500회)
	15:00	40 7000마라톤 - 스페셜	00 예배실황 지구촌교회 서울	00 [말씀]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40 생명의 삶	20 CBS 성서학당 (배요한)(4379회) 기독교 신앙, 그 깊이와 넓이 15강	00 만나 워십 강병삼 목사
	16:00	30 생명의 말씀-김미열 목사(원주중부교회)	00 사랑의 메시지 분당신교회 유귀현 목사 30 행복한 쉼터 송전교회 권준호 목사	00 하용조 목사의 요한복음 강해 40 바이블 필름 <누가복음> 50 [말씀] 박완철 목사(남서울은혜교회)	1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92회)	00 내 삶의 행복(180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저녁	17:00	00 수영로의 시간 성경집회 50 빛으로 소금으로	00 김승욱 목사와 함께하는 신앙특독 10 행복한 쉼터 군포성산교회 김자현 목사 40 행복한 쉼터 천주남성교회 안효관 목사	30 [말씀]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1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666회) 3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1934회) 50 행복다이어리(577회)	00 말씀의 창 아산큰빛교회 김성권 목사 30 말씀의 창 LA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
	18:00	00 백석의 시간-장정현 총장 30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 50 신앙예세이	10 백석대학교 전리의 시간 40 할렐루스트리 50 더 메시지	10 THE NEW 하늘빛항기 50 시가 러브소나타	00 TV강단 악대(송규의) 30 이음 목사의 말씀의 맥(39회)	00 글로벌 신앙토크쇼 왓츠윌(36회) 한글 날 때마다 생각이 많아져요 40 성경 속 전쟁사-에피소드
	19:00	00 찰스 스넬리 목사의 주님의 손길 30 생명의 말씀-정희호 목사(용인기쁨의교회)	00 사랑의 메시지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 30 사랑의 메시지 새은혜교회 황형택 목사	50 시가 러브소나타	00 TV강단 길트(채성철) 30 TV강단 베타나(곽주환)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20:00	00 생명의 말씀-유승대 목사(은평성결교회) 30 생명의 말씀-여주봉 목사(포도나무교회)	00 2025 다니엘 기도회 생방송	50 시가 러브소나타	00 CBS 비전특강 박관 목사의 성서적 전언치유 50 CBS 교회소식(1023회)	00 장종현 목사의 비전메시지(3회) 40 성지가 좋다(503회) 모세오경의 땅, 이집트를 가다 4부
	21:00	00 CTS 스페셜 50 CTS 뉴스 W	00 2025 다니엘 기도회 생방송	00 더사랑의교회 주일예배	00 국유의 그늘을 넘어 복음의 빛으로	1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232회)
	22:00	20 CTS특선다큐-기독교 이천년사 20 GOODTV 시네마 미라클 프롬 헤븐 2부	00 GOODTV 뉴스 20 GOODTV 시네마 미라클 프롬 헤븐 2부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30 믿음의 씨앗, 교황교회 패밀리	00 CBS NEWS 10 20 울포원(682회)	00 C채널 매거진 굿데이(335회) 20 금요성령집회 제자광성교회
저녁	23:00	00 윤호준 목사의 CTS 금요철야예배 50 은혜로운 찬송이야기	20 오륜교회 금요철야	10 [컨퍼런스] 언디파티드 4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필름 <누가복음>	20 CBS 금요철야예배 (새예덴교회)(873회)	10 금요철야예배 수영로교회
	24:00	00 콜링캣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20 우리들의 지식살롱 50 더 깊은 울림 여의도침례 수요 필 워십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2023 KGMFL	10 새롭게하소서(11031회) 최서형 장로	00 새예덴 철야예배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1:00	00 백설기	10 이영훈 목사의 성령님과 함께	00 2025 회복축제 <온전한> 40 [말씀] 권혁민 목사(씨드교회)	00 신위의마를 말씀 <김영준>(262회) 50 사랑의 말씀 <오정현>(1024회)	00 비전메시지 뉴욕우리교회 조원태 목사 50 리바이즈 워십
	2:00	00 TV찬양예배 5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10 매일 주와 함께	20 [말씀]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	40 이영훈목사의 말씀과 함께(583회)	00 말씀의 창 필그림신교회 양춘길 목사 3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40 김병삼 목사의 365 매일만나 <주님은 나의 최고봉>(115회)
	3:00	00 7000마라톤 - 스페셜 50 이영훈 목사의 힐링송	10 GOODTV 특별간중	00 [Global Sermon] Craig Groeschel's Ever Wonder Why? 30 [말씀] 홍인기 목사(라이트하우스무브먼트)	10 새롭게하소서(11358회) 김기중 목사	00 선한목자교회 주일예배실황 김다위 목사
	4:00	00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사신 2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30 CTS 경건예배 45 곡선희 목사의 예수소망의 삶	00 비전설교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30 장상길 목사의 생명의 정미비	10 [말씀] 박신용 목사(엘바인온누리교회)	00 CBS 성서학당 스페셜 <김지철>(3792회) 명화로 알아보는 나의 영성지수 13강 50 CBS 교회소식(1023회)	00 명성교회 수요기도회

www.booyoung.co.kr

부  영

사랑이 가득한 집!



신규 분양단지

부산 신항 마린애시앙
484세대 분양!

055-552-8245

신규 임대단지

태백 포레스트 애시앙
1,226세대 임대공급!

033-552-8245

광양 목성지구 파크뷰 부영 061-762-8245
1,064세대 임대공급!

「사랑으로」 부영

분양·임대단지 문의 **1577-5533**

분양단지

■ 남양주 도농애시앙 031-564-4040 ■ 남양주 진접 031-564-4040

임대단지

■ 남양주 월산12단지 031-595-6946 ■ 나주 1·2차 061-337-4025
■ 화성향남9·10·11단지 031-8047-6285 ■ 순천 1·2·5차 061-741-4025
■ 부산신호1·2·3·5차 051-832-5317 ■ 목포 1·2·3·5차 061-284-4025
■ 김제 1·2·3·5차 063-547-0922 ■ 화순 1·3·5·6차 061-373-4025

※본 광고에 사용된 이미지 및 내용, 문구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시행 (주) 부영주택**